

2021학년도 06월 모의평가  
나국어 모의평가 연계기출

나 국 어  
모 의 평 가  
연 계 기 출

나<sup>국</sup>어



과거제

---

유학은 ㉠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류를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든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17.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18.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 ②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19.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20.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 ③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포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상으로 고르면 ㉠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 기대어 실재와 같이 표현하면 ㉢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포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롬프뢰유\*의 흐름을 ㉤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그의 작품 ㉥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의 기법을 ㉦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 높였다.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 트롬프뢰유(trompe-l'oeil):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 오브제(objet): 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16. ㉠과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을 높였다.
- ②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롬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 ④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 ⑤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과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유포에 해당한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재처럼 보이게 하였다.
- ②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발라 외형을 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
- ③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는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객체는 실재 그대로 제시하였다.
- ④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⑤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하였다.

18. 윗글의 '헨슨'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쿠벨리스, 「무제」



코스수스,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쿠벨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스수스는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세 가지 모두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① 헨슨이 쿠벨리스에게 :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② 헨슨이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 ③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19.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누나가 그린 그림을 벽면 한쪽에 기대어 놓았다.
- ② ㉡: 그때는 언니도 노래를 잘 부르는 축에 들었다.
- ③ ㉢: 1학년이 출발한 데 이어 2학년도 바로 출발했다.
- ④ ㉣: 사무실에는 회계를 보는 직원만 혼자 들어갔다.
- ⑤ ㉤: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09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

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계급·출신 지역·나이·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 수단,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 미장센(mise en scène) : 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따위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과 실행.

3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에 대해 주요 학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후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 후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39. '집합 의례'에 대해 ㉠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족 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
- ②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 활동의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다.
- ③ 현대 사회에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 ④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 ⑤ 집합 의례의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40.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 ② 사람들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 ③ 사람들이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다.
- ④ 사람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
- ⑤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41.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는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 ②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가치의 일반화를 통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 본다.
- ③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④ ㉠과 ㉡은 모두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 ⑤ ㉠과 ㉡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 없이 집합 의례가 일어난다고 본다.

42. 윗글에서 설명한 '사회적 공연론'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시 시민들은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 갔다. 반대파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 ①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군.
- ②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군.
- ③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군.
- ④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 하는군.
- ⑤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06

17세기 초부터 ㉠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 제시하였다.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6.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 ④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한기는 흠승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 ② 아담 살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 ③ 이익과 흠승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 ④ 아담 살과 흠승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행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 ⑤ 『주제군징』과 『전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18.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군.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들어오기
- ② ㉡: 드러내었다
- ③ ㉢: 퍼뜨리기
- ④ ㉣: 실린
- ⑤ ㉤: 가리지

[33~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09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 생산학파의 견해였다. 생산학파는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근대 생산 체제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도시로 끌어 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 또한 다양한 습속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되는지 탐구했다. 예를 들어, 미셸 푸코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욕 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되었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하는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고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근대 도시는 어떠한 쾌락과 환상도 끼어 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인 듯하다.

이에 대하여 ㉡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콜린 캠벨은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생산학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기대가 쾌락을 유발하여 근대 소비 정신을 북돋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근대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을 ㉢ 아우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주목했던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소비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 가져다주는 구매 행위로 축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이러한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근대 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등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도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철도 여행은 근대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체험되었던 풍경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또한 유리와 철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 거리인 아케이드는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

호해지는 체험을 가져다주었다. 벤야민은 이러한 체험이 근대 도시인에게 충격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충격 체험을 통해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일깨워진다고 말했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영화는 벤야민에게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다. 영화는 조각난 필름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 내는 기계의 리듬을 ㉤ 떠올리게 한다. 또한 관객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참여하는 스태프는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업화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이기도 하다.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 영화의 형식 원리는 ㉦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 영화는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가져다준다. 벤야민은 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꿈의 체험에 ㉧ 빛대어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영화관에 모인 관객은 이런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한다.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는 생산학파와 소비학파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화된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다. 이렇게 벤야민의 견해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일면적인 시선을 ㉨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

33.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을 기준으로, 근대 도시의 산물인 영화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② 근대 도시와 영화의 개념을 정의한 후,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밝힌 벤야민의 견해에 대해 그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③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관점을 활용하여, 근대 도시의 기원과 영화의 탄생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영화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⑤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한 후, 근대 도시와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드러냄을 밝히고 있다.

3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근대 도시를 근대 도시인이 지닌 환상에 의해 작동되는 생산 기계라고 본다.
- ② ㉠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성립된 근대 생산 체제가 욕망과 충족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은 근대 도시인의 소비 정신이 금융주의 정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 ④ ㉡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로 전락한 대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존재라고 본다.
- ⑤ ㉠과 ㉡은 모두 소비가 노동자에 대한 집단 규율을 완화하여 유순한 몸을 만든다고 본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객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 ② 영화가 다루고 있는 독특한 주제에서 발생한다.
- ③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에서 유발되는 충격과 유사하다.
- ④ 촬영 기법이나 편집 등 영화의 형식적 요소에 의해 관객에게 유발된다.
- ⑤ 육안으로 지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영화적 체험으로부터 발생한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1920년의 근대 도시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베르토프는 다중 화면, 화면 분할 등 다양한 영화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일상적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이 영화는 억압의 대상이던 노동자를 생산의 주체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묘사한다. 영화인도 노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베르토프는 영화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베르토프는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를 통해 영화가 편집의 예술임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영화관에서 신기한 장면에 즐겁게 반응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 줌으로써 영화가 상영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 ① 베르토프의 영화는 분업화로 인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생산학파가 묘사하는 훈육된 노동자의 모습과는 다르군.
- ③ 베르토프가 다양한 영화 기법을 통해 일상 공간을 재구성한 것은 벤야민이 말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유발하겠군.
- ④ 베르토프가 사용한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는 벤야민이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를 보여 주는군.
- ⑤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관객의 모습은 영화관에서 신기한 구경거리인 영화를 즐기는 근대 도시인을 보여 주는군.

37. 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의 공간과 꿈꾸는 공간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 ② 소비 행위가 노동자에게 복합 체험을 가져다주는 공간이다.
- ③ 이질적인 것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가는 공간이다.
- ④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통해 노동의 소외가 극복된 공간이다.
- ⑤ 집단 규율을 따라 노동하는 노동자도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3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봉합(縫合)하려는
- ② ㉣: 보증(保證)하는
- ③ ㉣: 연상(聯想)하게
- ④ ㉣: 의지(依支)하여
- ⑤ ㉣: 개편(改編)하는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09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사료의 불완전성은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그 불완전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으며 역사는 끝없이 다시 서술된다.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 만날 수 있다면 역사학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 사료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유물, 그림, 구전 등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 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의 이른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시각 매체의 확장은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다.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영화를 통한 역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일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 나타났다.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 사료의 언어는 매개 지시 대상과 물리적·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이다. 반면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질성을 띤다. 즉, 영화의 이미지는 다편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 광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고양하여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서술로 비춰지게 된다.

그렇다면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두 축을 ㉣ 이룬다.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연관된다. 영화인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혹은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증언한다.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다. 역사가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등을 통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이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기도 한다.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일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 펼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가는 ㉦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 서술에서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역사가는 ㉧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지

어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지만 사고 방식과 언어, 물질문화, 풍속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혹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 어떤 역사가들은 허구의 이야기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기도 한다. 역사가가 허구를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이다.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 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 계급, 피정복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문혀 있던 목소리를 표현해 낸다.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의 한 주체가 된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의 개념을 밝히면서 영화와 역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영화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혀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대조하여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역사 서술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영화의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영화가 역사 서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②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 ③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문헌 사료의 언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강하다.
- ⑤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기호이다.

23. ㉠, ㉡의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 조선 후기 유행했던 판소리를 자료로 활용하여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 B.C.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  
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경전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 중국 명나라 때의 상거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명나라  
때 유행한 다양한 소설들에서 상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 공통된 요소를 분석했다.

㉣. 17세기의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한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면서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같은 시대에 나온 설화집의 여러 곳에서 문장을 차용했다.

- |   | ㉠    | ㉡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24. ㉠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많은 사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능  
성을 가지고 있다.
- ②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같이 허구를  
포함하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
- ③ 영화가 늘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며, 공식 역  
사의 입장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곤 한다.
- ④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는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둔 영화는 주관에 매몰된 역사 서술일  
뿐이다.
- ⑤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야 사료  
로 사용이 가능하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82년 작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중엽 프랑  
스 농촌의 보통 사람들 간의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다. 당시 사건의 정황과 생활상에 관한 고증을 맡은 한 역  
사가는 영화 제작 이후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동명의 역사서를 출간했다. 1993년, 영화 「마르탱 게  
르의 귀향」은 19세기 중엽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  
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 「서머스비」로 탈바꿈되었다. 두  
작품에서는 여러 해 만에 귀향한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짜  
임이 드러난다. 전자는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치중했다. 반면 후자는 가짜 남편을 마을에 바람직한 변화  
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다.

- ①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하는군.
- ②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을 가공의 인물  
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비」에서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겠군.
- ③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실제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토대  
로 제작됐지만, 그 속에도 역사에 대한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겠군.
- ④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역사적 고증에 바탕을 두고 당  
시 사건과 생활상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에 가깝겠군.
- ⑤ 역사서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프랑스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서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루었다는 점  
에서 미시사 연구의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군.

2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면(對面)할
- ② ㉡: 간주(看做)되었던
- ③ ㉢: 대두(擡頭)했다
- ④ ㉣: 결합(結合)한다
- ⑤ ㉣: 전개(展開)하기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 절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2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이 사색적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② 과학 혁명의 시대에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사색적 삶의 위상보다 높았다.
- ③ 청교도 윤리는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켰다.
- ④ 시간-동작 연구는 인간의 노동이 두뇌노동과 근육노동으로 분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⑤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다.

22. ㉠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기계 기술은 정신 기술처럼 가치 있으며, 산업 현장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만족스럽다.
- ②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피로움과 질곡에 빠지고 말 것이다.
- ③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유롭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유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 ④ 나태는 녹이 스는 것처럼 사람을 쇠퇴하게 만들며 쇠퇴의 속도는 노동함으로써 지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 ⑤ 인간은 기계이므로 인간의 행동, 언어, 사고, 감정, 습관, 신념 등은 모두 외적인 자극과 영향으로부터 생겨났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20세기 후반 이후의 '후근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규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근대 사회가 '규율 사회'였음에 비해 후근대 사회는 '성과 사회'이다. 규율 사회가 외적 강제에 따라 인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면, 성과 사회는 성공을 향한 내적 유혹에 따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결핍이 해소되고 규율 사회의 강제가 약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규율 사회에서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 착취를 통해 관철된다. 그 결과 피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되었다는 것이다.

- ① 근대 사회에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확립된 노동 규율은 타자 착취를 위한 규율 사회의 외적 강제로 볼 수 있겠군.
- ②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은 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기 착취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이 되면서 성과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지는군.

- ④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이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포착하는 견해에 반하는 것이군.
- ⑤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현대인의 행동은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 ② ㉡: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씀.
- ③ ㉢: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
- ④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 ⑤ ㉤: 어떤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6.06B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 '위험 사회'라고 규정하는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

국가적으로 ㉢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잃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며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③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였다.
- ⑤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22.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 ②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
- ③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
- ④ 벡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모색하게 하는 조건이다.
- ⑤ 바우만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위험 요소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 ② ㉡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의 속성에 서 유추하여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다.
- ③ ㉠과 ㉡은 모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 ④ ㉠과 ㉡은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 ⑤ ㉠과 ㉡은 모두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쫓아내거나 몰아냄.
- ② ㉣: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 ③ ㉤: 걸으며 나타냄.
- ④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⑤ ㉤: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B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든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거론된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황적 운이다.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주면 된다.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편파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17. ㉠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⑤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18. ㉡의 관점에 따를 때,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거친 성격의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주위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했다.
- ㉡.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앞 사람의 발을 밟게 되었다.
- ㉢.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가 실수로 버려진 것인 줄 모르고 찢으며 놀았다.
- ㉣. 풍족한 나라의 한 종교인이 가난한 나라로 발령을 받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9. 윗글에 근거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축구선수 A와 B가 있다. A는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하여 골을 넣었는데, B는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 골을 넣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 데도, 통상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

- 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 ②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 ③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④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가 B의 상황이라면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받아서 안 된다고 본다.
- ⑤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 ② ㉡: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
- ③ ㉢: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듦.
- ④ ㉣: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씀.
- ⑤ ㉤: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6A

(가)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규범 윤리학이라면, 옳음의 의미 문제, 도덕적 진리의 존재 문제 등과 같이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루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에서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과 도덕적 진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나)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본다. 즉 과학적 판단이 '참' 또는 '거짓'을 ㉠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이때 참으로 판정된 명제를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리라고 ㉡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 실재론에서 주장하듯, '도둑질은 옳지 않다'가 도덕적 진리라면, 그것이 참임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성질을 도둑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다) 한편 정서주의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 실재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정서주의에서는 옳음이나 옳지 않음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까? 도둑질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한다. 즉 '도둑질은 옳다'는 판단은 도둑질에 대한 승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도둑질은 옳지 않다'는 판단은 도둑질에 대한 부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라) 이런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도덕 실재론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때 도덕적 판단이 나타내는 승인 감정 또는 부인 감정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인 감정은 어떤 행위를 좋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길 욕망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을 해야 한다는 동기 부여까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 부인 감정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이에 비해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 이외에도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에 덧붙여 '사람들은 약자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와 같이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추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덕 실재론에서는 약자를 돕는 윤리적 행위를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 없이도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수 있는 정서주의는 도덕 실재론에 비해 높이 평가된다.

또한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승인 감정과 부인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정서주의에 따르면 사람들 간의 도덕적 판단의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 합의하지 못하는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굳이 어느 한 쪽 의견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서로 감정과 태도가 다를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설명

은 도덕적 판단의 차이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 하지만 옳음과 옳지 않음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정서주의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㉔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감정이 변할 때마다 도덕적 판단도 변한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 판단은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 둘째, ㉕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지만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 셋째, 감정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도 없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과 ㉖ 배치된다.

2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을 구별하고 메타 윤리학의 두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에 대한 정서주의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④ (라): 도덕 실재론의 장점과 의의를 정서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정서주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열하고 있다.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 자체에 대해 연구한다.
- ② 정서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와 직접 연결된다.
- ③ 정서주의에 따르면,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 ⑤ 도덕 실재론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승인 감정에 의해 '옳음'의 태도를 표현한다.

24. ㉕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덕적 판단의 변화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 없다.
- ② 감정도 수시로 변하고, 도덕적 판단도 수시로 변한다.
- ③ 도덕적 판단과 달리 감정이 바뀔 때에는 이유가 필요하다.
- ④ 감정 없는 사람도 없고,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 ⑤ 감정과 달리 도덕적 판단을 바꿀 때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는 정서주의자이고, B는 도덕 실재론자이다. 두 사람은 모두 '옳음'과 '옳지 않음'이 각각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에 대응한다고 본다. 또한 다음 두 예술적 판단에 대해, A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정서주의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B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ㄱ) 예술작품 △△는 아름답다.  
(ㄴ) 예술작품 △△는 아름답지 않다.

- ① A와 B는 모두 예술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군.
- ② A는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이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생각하겠군.
- ③ A는 (ㄱ)과 (ㄴ) 중 하나는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④ B는 (ㄱ)과 (ㄴ) 중 하나는 '거짓'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⑤ B는 (ㄱ)과 (ㄴ)은 모두 예술작품 △△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겠군.

26. ㉖~㉘의 사전적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㉖: 판별하여 결정함.
- ② ㉗: 규칙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함.
- ③ ㉘: 서로 의견이 일치함.
- ④ ㉙: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 놓음.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 ②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③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 ④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 ⑤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23.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 ②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 ④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다.
- ⑤ 시민 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24.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하다.
- ③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⑤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06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미술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난가리 연작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가감으로써 ①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는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이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폼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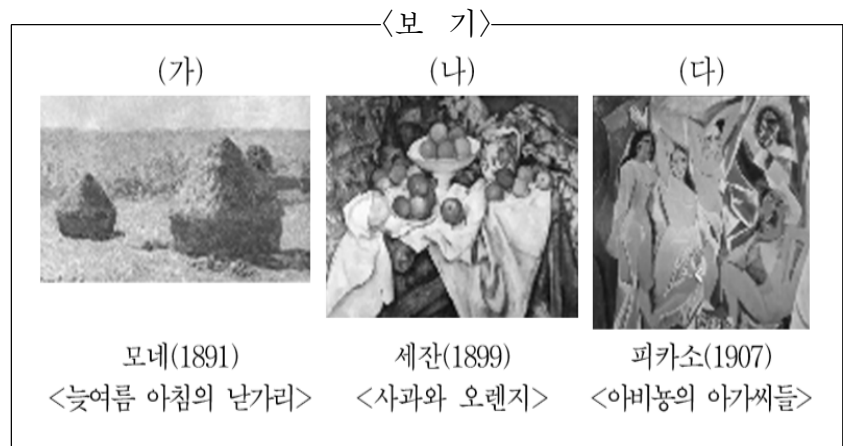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①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리의 지식이 중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해 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23. 스타인의 초상화와 관련된 피카소의 의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느 한순간의 스타인의 외양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재현하려 했다.
- ②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변하게 될 스타인의 모습을 나타내려 했다.
- ③ 고전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어 스타인을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려 했다.
- ④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타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정확히 묘사하려 했다.
- ⑤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인의 모습을 재현하려 했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인 그림이군.
- ②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군.
- ③ (가)와 달리 (나)는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④ (가)와 달리 (다)는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⑤ (가), (나), (다)는 모두 ‘세상을 향한 창’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서 나온 그림이군.

25. 폼브리치와 굿맨이 인상주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망막에 맺힌 상은 오히려 ‘순수한 눈’을 왜곡할 수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성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이다.
- ③ 망막에 맺힌 상을 그대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성은 얻을 수 없다.
- ④ 대상의 숨어 있는 실재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눈 이외의 감각기관이 필요하다.
- ⑤ 인상주의의 재현 체계는 다른 유파의 재현 체계에 비해 사실성을 얻기가 어렵다.

26.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양 사람이라도 동양의 수묵화나 사군자화를 감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 ② 그림에 재현된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은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 ③ 대상의 그림자까지 묘사한 그림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공간감과 깊이를 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듯이 재현 체계는 발전할 수 있다.
- ④ 그림에서 대상을 알아보는 능력은 선천적이어서 생후 일정 기간 그림을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도 처음 그림을 대하자마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림에서 알아본다.
- ⑤ 나무를 그린 소묘 속의 불분명한 연필 자국은 나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 인해 나무로 보이고, 소묘 때 그림에 있는 비슷한 연필 자국은 소로 보인다.

27.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① 습득(習得)하게
- ② 체득(體得)하게
- ③ 취득(取得)하게
- ④ 터득(摠得)하게
- ⑤ 획득(獲得)하게

영상 안정화 기술

---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도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LFIA 키트는 주로 ㉠ 직접 방식 또는 ㉡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35.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 ②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 ③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 ④ LFIA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⑤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3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 ② ㉠은 ㉡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③ ㉡은 ㉠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군.
- ④ ㉡은 ㉠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았겠군.
- ⑤ ㉠과 ㉡은 모두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하겠군.

37.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와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검사 결과 ( A )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 ( B )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 |   | A   | B   |
|---|-----|-----|
| ① | 진양성 | 진음성 |
| ② | 진양성 | 위음성 |
| ③ | 위양성 | 위음성 |
| ④ | 위음성 | 진음성 |
| ⑤ | 위음성 | 위양성 |

3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기존의 살모넬라균 분석법은 정확도는 높으나 3~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므로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살모넬라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 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 ① ㉠을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군.
- ② ㉠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겠군.
- ③ ㉠을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겠군.
- ④ ㉠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겠군.
- ⑤ ㉠을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6A

지문(指紋)은 손가락의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융기되어 일정한 흐름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솟아오른 부분을 융선, 파인 부분을 골이라고 한다. 지문은 진피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홍채, 정맥, 목소리 등과 함께 지문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은 등록된 지문과 조회하는 지문이 동일한지 판단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이다. 지문을 등록하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문 입력 장치를 통해 지문의 융선과 골이 잘 드러나 있는 지문 영상을 얻어야 한다. 지문 입력 장치는 손가락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이때 지문의 융선은 접촉면과 닿게 되고 골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 입력 장치의 융선과 골에 대응하는 빛의 세기, 전하량, 온도와 같은 물리량에 차이가 발생한다.

㉠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조명 장치, 프리즘, 이미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프리즘의 반사면에 손가락을 고정시키면 융선 부분에 묻어 있는 습기나 기름이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한다. 조명에서 나와 얇은 막에 입사된 빛은 굴절되거나 산란되어 약해진 상태로 이미지 센서에 도달한다. 골 부분은 반사면에 닿아 있지 않으므로 빛이 굴절, 산란되지 않고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다. 이미지 센서는 빛의 세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지문 영상을 만든다. 이 장치는 지문이 있는 부위에 땀이나 기름기가 적은 건성 지문인 경우에는 온전한 지문 영상을 획득하기 어렵다.

㉡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미세한 정전형 센서들을 촘촘하게 배치한 판을 사용한다. 이 판에는 전기가 흐르고 각 센서마다 전하가 일정하게 충전되어 있다. 판에 손가락이 닿으면 전하가 방전되어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든다. 이때 융선이 접촉된 센서와 그렇지 않은 센서는 전하량에 차이가 생기는데, 각 센서의 전하량을 변환해 지문 영상을 얻는다.

㉢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인체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여러 개의 작은 초전형 센서를 손가락의 폭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일렬로 배치해서 사용한다. 이 센서는 온도가 변할 때에만 신호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센서가 늘어난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손가락을 접촉시킨 채 이동시키면, 접촉면과 지문의 융선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여 융선과 골에 따라 센서의 온도가 달라진다. 이때 발생하는 미세한 온도 변화를 센서가 감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신호를 변환하여 연속적으로 저장해 지문 영상을 얻는다. 이 장치는 다른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할 수 있어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기기에 장착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생체 인식 시스템에서는 '생체 정보 수집', '전처리', '특징 데이터 추출', '정합'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문 인식 시스템도 이를 따른다. 생체 정보 수집 단계는 지문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지문 영상을 얻는 과정에 해당한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지문 형태와 무관한 영상 정보를 제거하고 지문 형태의 특징이 부각되도록 지문 영상을 보정한다.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전처리 단계에서 보정된 영상으로부터 각 지문이 가진 고유한 특징 데이터를 추출한다. 특징 데이터로는 융선의 분포 유형, 융선의 위치와 연결 상태 등이 사용된다. 정합 단계에서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특징 데이터와 지문 조회를 위해 추출된 특징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 값이 기준치보다 크면 동일한 사람의 지문으로 판정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는 프리즘이 필요하다.
- ② 정맥은 지문과 달리 신원 확인을 위한 생체 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
- ③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가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에 더 유리하다.
- ④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반사면에 용선 모양의 얇은 막이 형성되지 않아야 온전한 지문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⑤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양호한 지문을 얻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센서에 접촉시킨 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17. ㉠~㉣을 사용해 정상적인 '지문 영상'을 얻었다고 할 때, 각 센서에 감지되는 물리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용선의 위치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가 골의 위치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보다 강하겠군.
- ② ㉡에서는, 용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과 같겠군.
- ③ ㉢에서는, 용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보다 적겠군.
- ④ ㉣에서는, 용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와 같겠군.
- ⑤ ㉣에서는, 용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보다 낮겠군.

18. ㉠에 따라 <보기>의 정보를 활용한 홍채 인식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할 때, 단계별 고려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근육 막으로, 빛을 통과시키는 구멍인 동공을 둘러싸고 있다. 홍채 근육은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수축하거나 이완하여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홍채에는 불규칙한 무늬가 있는데, 두 사람의 홍채 무늬가 같을 확률은 대략 20억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다.

- ① [생체 정보 수집] 홍채의 바깥에 각막이 있으므로 홍채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지문 입력 장치와 달리, 홍채 입력 장치와 홍채가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겠군.
- ② [전처리]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은 영상에서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나타난 부분만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
- ③ [전처리]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은 영상을 보정해야겠군.
- ④ [특징 데이터 추출] 홍채 근육에 의해 동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홍채에서 동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특징 데이터로 추출해야 하겠군.
- ⑤ [정합] 등록된 홍채의 특징 데이터와 조회하려는 홍채의 특징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를 판정하는 단계이므로 유사도의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야 하겠군.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06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126.63.1'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한다.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 등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DNS가 필요하며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서버라고 한다.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사용자가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 놓아야 한다.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웹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 한다.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낸다. 네임서버는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클라이언트에 이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 응답 패킷에는 어느 질의 패킷에 대한 응답인지가 적혀 있다. 만일 해당 IP 주소가 목록에 없으면 네임서버는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사이트를 찾아간다.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추어 패킷을 주고받는다.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특정 질의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 DNS 스푸핑은 UDP의 이런 허점들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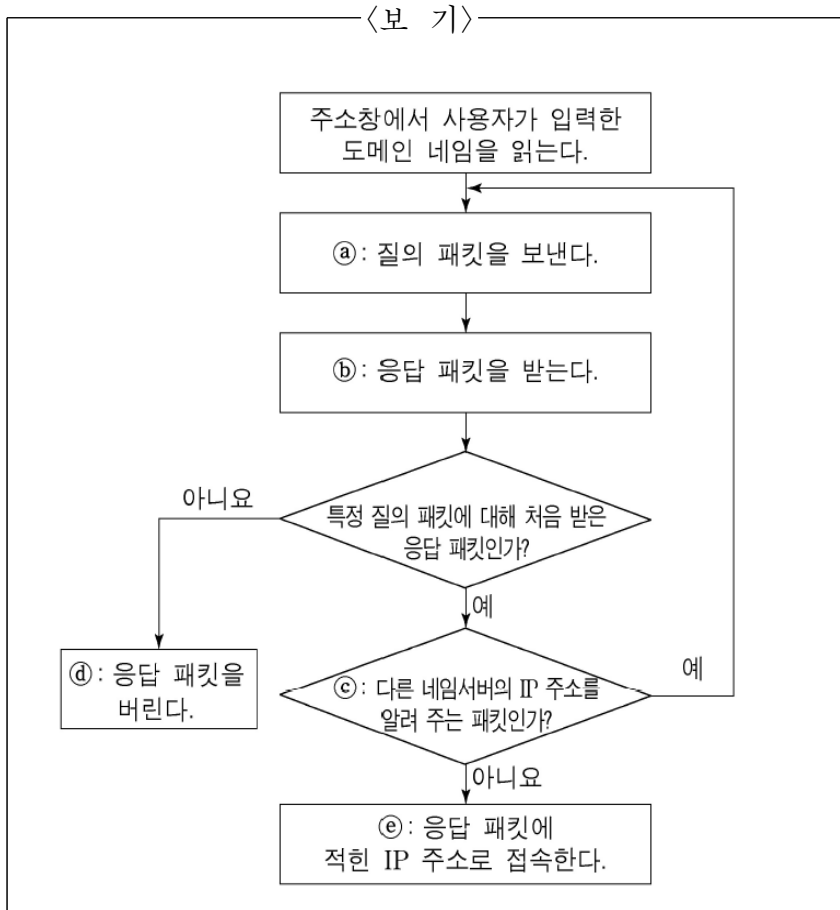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자.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 한다.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질의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도 패킷이 전달되고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하고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여 위조 사이트로 연결된다.

30. 윗글의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컴퓨터 사이의 통신을 위한 규약으로서 저마다 정해진 기능이 있다.
- ② IP에 따르면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4개의 필드에 적힌 숫자로 구성된다.
- ③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IP 주소를 요청해야 IP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 ④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한다.
- ⑤ UDP는 패킷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킷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31. <보기>는 ㉠ 또는 ㉡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 ㉠이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질의 내용이 동일하고 패킷을 받는 수신 측도 동일하다.
- ② ㉡: ㉡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고 패킷을 보낸 송신 측도 동일하다.
- ③ ㉢: ㉢은 ㉠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 ④ ㉣: ㉣의 응답 패킷에는 공격자가 보내 온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 ⑤ ㉤: ㉤의 IP 주소는 ㉠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이다.

32.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 ①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실 IP 주소로 변환한다.
- ②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 ③ 유동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 ④ 고정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IP 주소가 서로 다른 컴퓨터들은 각각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의 IP 주소도 서로 달라야 한다.

33.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DNS가 고안되기 전에는 특정 컴퓨터의 사용자가 'hosts'라는 파일에 모든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 놓았고, 클라이언트들은 이 파일을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네임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질의 패킷을 보내기 전에 hosts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다.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고, IP 주소를 찾지 못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낸다.

- 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hosts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되겠군.
- ②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 ③ 클라이언트에 hosts 파일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만 입력하면 되겠군.
- ④ 네임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 ⑤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3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제조(製造)되는
- ② ㉡: 표시(標示)한다
- ③ ㉢: 발생(發生)된
- ④ ㉣: 인정(認定)한
- ⑤ ㉤: 비교(比較)해

[2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6A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 기구는 백열전구의 발명 이후로 발광 효율을 높이고 기구의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 발광 효율은 소비 전력이 빛으로 변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빛이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있는 가시광선을 의미한다.

백열전구는 둥근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를 넣고 불활성 기체를 넣은 단순한 구조이다. 필라멘트에 전압을 가하면 뜨거워진 필라멘트에서 일부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된다. 이 전자기파의 파장은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데 이 중 빛은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열의 형태인 적외선이다. 전구에 투입되는 전력의 대부분이 열로 방출되므로 발광 효율이 아주 낮고, 필라멘트가 고온으로 가열되므로 끊어지기 쉬워 백열전구의 수명도 짧다. 전구에 가해지는 전압을 높여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빛의 비율은 높아지지만 수명은 짧아진다.

형광등은 원통형 유리관 내에 수은과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고 양 끝에 필라멘트가 붙어 있는 구조이다.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 입자에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한다.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 이때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다르므로 형광등의 발광 효율에도 영향을 준다. 형광등은 필라멘트에서 직접 빛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가열 온도를 낮출 수 있어서 백열전구에 비해 30% 정도의 전력 소비로 같은 밝기의 빛을 낼 수 있다. 또한 백열전구에 비해 적외선 방출도 적고 수명도 5~6배 정도 길다.

발광 다이오드(LED)는 p형, n형 두 종류의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드는데 전압을 가하면 두 반도체 사이에는 일정한 전압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이 사이를 움직이는 전자는 그 전압차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접합된 두 반도체를 구성하는 화합물에 따라 필요한 전압의 크기나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다르다. 이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정해지면서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의 색을 띠게 된다.

발광 다이오드를 조명용 발광 소자로 사용하려면 가시광선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단색 빛을 내는 발광체에 형광 물질을 입혀 형광등처럼 빛이 방출되도록 만든다. 하지만 발광 다이오드는 필라멘트와 같은 가열체가 없으므로 형광등에 비해 수명이 길고 에너지 손실이 작다.

2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열전구의 필라멘트에서는 빛과 적외선이 방출된다.
- ② 형광등은 백열전구에 비해 구조는 복잡하지만 수명은 길다.
- ③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형광등의 빛의 색이 결정된다.
- ④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빛의 색이 정해진다.
- ⑤ 형광등의 수은 입자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후 형광 물질을 자극하여 빛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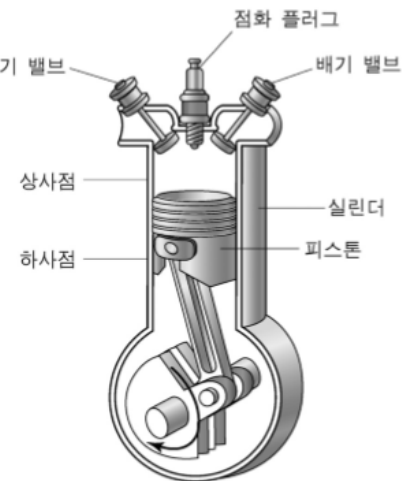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백열전구는 형광등보다 적외선 방출이 많으므로 형광등에 비해 발광 효율이 낮겠군.
- ② 백열전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를 낮추면 발광 효율은 낮아지겠군.
- ③ 형광등에서 빛 변환 효율이 높은 형광 물질을 사용하면 형광등의 발광 효율을 높일 수 있겠군.
- ④ 두 조명 기구에서 같은 양의 빛 에너지가 나온다면 소비 전력이 작은 쪽이 발광 효율이 높은 것이군.
- ⑤ 조명용 발광 다이오드는 형광 물질을 통해 빛을 생산하지만 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낮겠군.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06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연료량 대비 운행 거리의 비율인 연비로 나타내며, 이는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이러한 자동차의 연비는 엔진의 동력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엔진의 동력은 흡기, 압축, 폭발, 배기의 4행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생산된다. 흡기 행정에서는 흡기 밸브를 열고 피스톤을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실린더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 공기가 유입되는데, 흡입되는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공기와 함께 연료를 섞어 넣는다. 압축 행정에서는 ㉠ 실린더를 밀폐시키고 피스톤을 다시 상사점으로 밀어 공기와 연료의 혼합 기체를 압축한다. 폭발 행정에서는 피스톤이 상사점에 이를 즈음에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일으켜 압축된 혼합 기체를 연소시킨다. 압축된 혼합 기체가 폭발적으로 연소되면서 실린더 내부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외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밀리면서 동력이 발생한다. 배기 행정에서는 배기 밸브가 열리고 남아 있는 압력에 의해 연소 가스가 외부로 급격히 빠져나간다. 피스톤이 다시 상사점으로 움직이면 흡기 때와는 반대로 부피가 줄면서 대기압보다 내부 압력이 높아지므로 잔류 가스가 모두 배출된다.



이러한 엔진의 동력 발생 주기에서 흡입되는 공기와 분사되는 연료의 혼합비를 어떻게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연비가 크게 달라진다. 일정 질량의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한편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의 이동으로 흡입될 수 있는 공기의 부피는 정해져 있으므로, 공기의 밀도가 변하지 않으면 한 주기 동안 완전 연소 가능한 연료량의 최대치는 일정하다. 즉 최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기와 연료의 적절한 혼합비는 이론적으로는 일정하다. 혼합비가 적절하지 않으면 출력이 떨어지면서 유해 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적정 혼합비보다 혼합 기체에 포함된 연료의 비율이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하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증가한다. 반대로 연료의 비율이 낮아지면 공기 과잉으로 질소산화물이

늘어나고 배기가스에 산소가 잔류한다.

이론과 달리 실제 환경에서의 적정 혼합비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이는 대기압, 엔진의 회전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실린더에 흡입되는 공기의 질량이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려면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혼합비를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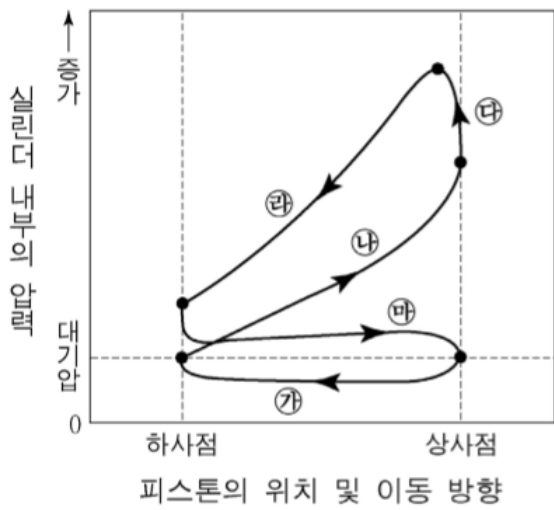
- ② 엔진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 ③ 배기가스의 배출 속도가 느려진다.
- ④ 배기가스에서 잔류 산소가 검출된다.
- ⑤ 동일 양의 연료에서 얻는 출력이 커진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A

36.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4 행정의 동력 발생 주기를 완료하면 피스톤은 실린더를 2회 왕복한 것이 된다.
- ② 자동차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는 단계에서 동력을 얻는다.
- ③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제어하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 ④ 혼합 기체의 흡입과 연소 가스의 배출은 실린더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에 의해 발생한다.
- ⑤ 실제 환경에서 엔진의 회전수는 혼합 기체의 적정 혼합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37. 다음 그래프는 엔진이 작동할 때의 실린더 내부 압력과 피스톤의 위치 및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밑글의 ㉠에 해당하는 구간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해발 고도가 5,000 m 정도인 고원 지역에서는 대기압과 공기의 밀도가 해수면 인접 지역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해수면 인접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이 최고가 되도록, 한 주기 동안 분사되는 연료량을 고정시킨 자동차를 고원 지역에서 운행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자동차 엔진은 흡입 공기의 압력을 감지하여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 ① 탄화수소의 발생량이 증가한다.

우리는 컴퓨터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문서를 작성할 때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번갈아 실행되고 있다. 이는 컴퓨터 운영 체제의 일부인 CPU(중앙 처리 장치) 스케줄링 때문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컴퓨터 운영 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실행 대기 프로그램의 목록인 '작업큐'에 등록한다. 운영 체제는 실행할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업큐에서 선택하여 CPU에서 실행하고 실행이 종료되면 작업큐에서 지운다.

한 개의 CPU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A와 B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로그램은 실행을 요청한 순서대로 작업큐에 등록되고 이 순서에 따라 A와 B는 차례로 실행된다. 이때 A의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B가 기다려야 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므로 동시에 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A와 B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번갈아 실행하면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해서 CPU의 실행 시간을 여러 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놓고 각각의 구간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한다. 여기서 한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구간 실행'이라 하며, 각각의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을 '구간 시간'이라고 하는데 구간 시간의 길이는 일정하게 정한다. A와 B의 구간 실행은 원칙적으로 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번갈아 반복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먼저 종료되면 나머지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된다.

한편, 어떤 프로그램의 구간 실행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은 작업큐에서 대기한다. A의 구간 실행이 끝나면 A의 실행이 정지되고 다음번 구간 시간 동안 실행할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이때 A가 정지한 후 B의 실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교체 시간'이라고 하는데 교체 시간은 구간 시간에 비해 매우 짧다. 교체 시간에는 그때까지 실행된 A의 상태를 저장하고 B를 실행하기 위해 B의 이전 상태를 가져온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이 이어서 실행되더라도 운영 체제가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판단해야 하므로 구간 실행 사이에는 반드시 교체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업큐에 등록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총처리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순수하게 프로그램의 실행에만 소요된 시간인 '총실행 시간'에 '교체시간'과 작업큐에서 실행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모두 합한 것이다. ㉠ 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구간 실행 횟수가 많아져서 교체 시간의 총합은 늘어난다. 그러나 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짧거나 같은 프로그램은 한 번의 구간 시간 내에 종료되고 곧바로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제 프로그램 A, B, C가 실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A가 실행되고 있고 B가 작업큐에서 대기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C를 실행할 경우, C는 B 다음에 등록되므로 A와 B의 구간 실행이 끝난 후 C가 실행된다. A와 B가 종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구간 실행이 필요하면 작업큐에서 C의 뒤로 다시 등록되므로 C, A, B의 상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세 프로그램은 등록되는 순서대로 반복해서 실행된다.

이처럼 작업큐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지면 각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따라서 작업큐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를 제한해 대기 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CPU 스케줄링은 컴퓨터 운영 체제의 일부이다.
- ②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되면 실행 결과는 작업큐에 등록된다.
- ③ 구간 실행의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구간 시간보다 짧다.
- ④ CPU 한 개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이 가능하다.
- ⑤ 컴퓨터 운영 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한다.

20. ㉠의 실행 과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체 시간이 줄어들면 총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 ②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 총처리 시간이 늘어난다.
- ③ 총실행 시간이 줄어들면 총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 ④ 구간 시간이 늘어나면 구간 실행 횟수는 늘어난다.
- ⑤ 작업큐의 프로그램 개수가 늘어나면 총처리 시간은 늘어난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 한 것은? [3점]

— <보 기> —

운영 체제가 작업큐에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다음에 실행할 프로그램으로 선택하면 작업큐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고도 각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프로그램 P, Q, R이 실행되고 있는 예를 생각해 보자. P가 '구간 실행' 상태이고 Q와 R이 작업큐에 대기 중이며 Q의 순위가 R보다 높다. P가 구간 실행을 마치고 작업큐에 재등록될 때, P의 순위를 Q보다는 낮지만 R보다는 높게 한다. P가 작업큐에 재등록된 후 다시 P가 구간 실행을 하기 직전까지 \_\_\_\_\_ [가] \_\_\_\_\_을/를 거쳐야 한다.

- ① P에서 R로의 교체
- ② Q의 구간 실행
- ③ Q의 구간 실행과 R의 구간 실행
- ④ Q의 구간 실행과 Q에서 P로의 교체
- ⑤ R의 구간 실행과 R에서 P로의 교체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06

어떤 학생이 ㉠가볍게 건다가 빠르게 뛰라고 하자. 여기에는 어떤 운동생리학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을까? 운동을 수행할 때 근육에서 발현되는 힘, 즉 근수축력은 운동 강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따라서 운동을 하는 학생이 뛰는 속도를 높게 되면, 다리 근육의 근수축력은 그에 따라 증가한다.

다리 근육을 포함한 골격근\*은 수많은 근섬유\*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근섬유들은 운동 신경의 자극에 의해 수축되는데, 이때 하나의 운동 신경과 이에 의해 지배되는 근섬유들을 '운동 단위'라고 부른다. 운동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섬유는 크게 지근섬유와 속근섬유로 구분된다. 지근섬유는 근육 내 산소 저장과 운반에 관여하는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높아 붉은색을 띠고 있어 적근섬유라고 부르며, 상대적으로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적어 흰색을 띠는 속근섬유는 백근섬유라고 한다. 운동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지근섬유는 하나의 운동 신경에 10~180개 정도가 연결되고, 속근섬유는 300~800개 정도가 연결된다. 하나의 운동 신경에 연결되는 근섬유가 많을수록 근육의 수축력은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속근섬유로 구성된 운동 단위가 훨씬 강한 수축력을 발생시킨다.

한편 근섬유들은 종류에 따라 수축력, 수축 속도,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축력과 느린 수축 속도, 높은 피로 저항력을 지니고 있다. 속근섬유는 세부적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다시 a형과 b형으로 나뉜다. b형 속근섬유는 지근섬유에 비해 빨리 피로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신속하고 폭발적인 수축력을 발생시킨다. 반면에 a형 속근섬유는 지근섬유와 b형 속근섬유의 중간 속성을 가지고 있어 지근섬유보다 수축 속도가 빠르며, 동시에 b형 속근섬유보다 높은 피로 저항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육의 지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지구력이 강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운동에 적합하다. 반면에 속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100m 달리기와 같은 단거리 운동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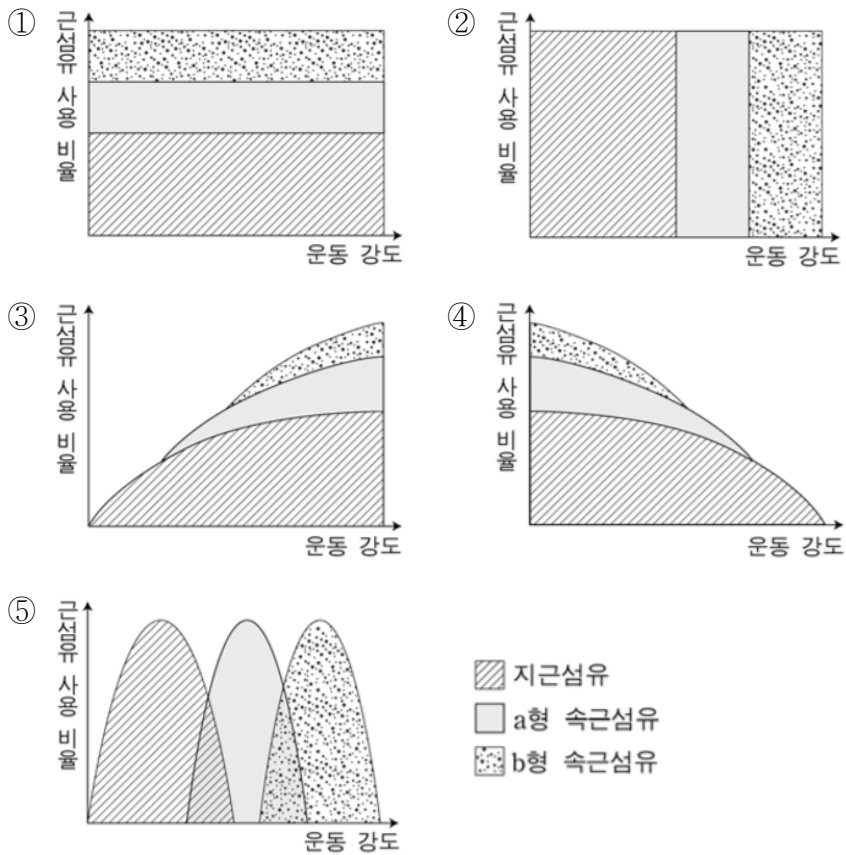
운동 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때 근육의 수축력도 이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 중의 하나가 ㉠크기의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운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운동을 할 때 운동 단위는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원된다. 저강도 운동을 할 때는 가장 작은 크기의 운동 단위를 가지는 지근섬유가 동원된다. 이후 운동 강도가 증가되면 더 큰 운동 단위를 가지는 속근섬유의 운동 단위가 추가적으로 동원된다. 따라서 저강도의 '걷기'에서는 대부분의 다리 근육에 지근섬유가 동원되고, 중강도의 '달리기'에서는 지근섬유에 a형 속근섬유가 추가적으로 동원된다. 또한 고강도의 '전력 질주'에서는 지근섬유와 a형 속근섬유에 b형 속근섬유가 추가적으로 활성화된다.

\* 골격근 : 중추 신경의 지배에 따라 골격을 움직이는 근육.  
\* 근섬유 : 근육 조직을 구성하는 수축성을 가진 섬유상 세포.

4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운동 단위는 운동 신경과 근섬유로 구성된다.
- ② 속근섬유는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적어 흰색을 띤다.
- ③ 다리 근육을 포함하는 골격근은 운동 신경의 자극에 의해 수축된다.
- ④ 하나의 운동 신경에 결합하는 근섬유 수가 많으면 근수축력이 높아진다.
- ⑤ 하나의 운동 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 수는 지근섬유가 속근섬유보다 많다.

48. ㉠을 표현한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49. [가]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운동선수 A, B, C의 장딴지 근육은 속근섬유 비율이 각각 20%, 50%, 80%이다.

\* 단, 세 선수의 장딴지 근육의 운동 단위 수는 같으며, a형, b형 속근섬유의 비율 및 다른 생리학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는 B보다 장딴지 근육의 피로 저항력이 낮다.
- ② B는 C보다 장딴지 근육의 수축 속도가 느리다.
- ③ C는 A보다 근육의 수축력이 낮다.
- ④ 100m 달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B이다.
- ⑤ 마라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C이다.

50. ㉠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어머니는 할머니를 위해 가벼운 이불을 준비했다.
- ② 나는 용돈을 탄 지 오래 되어서 주머니가 가볍다.
- ③ 철수는 입이 가벼워서 내 비밀을 말해 줄 수가 없다.
- ④ 아직 병중이니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 ⑤ 사태를 가볍게 보았다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11

음성 인식 기술은 컴퓨터가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인식하여 해당 문자열로 바꾸는 기술이다. 사람의 말은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볼 수 있다. 컴퓨터는 각 단어의 음소들의 배열을 '기준 패턴'으로 미리 저장해 두고, 이를 입력된 음성에서 추출한 '입력 패턴'과 비교하여 단어를 인식한다.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된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한 후 음성 신호만 추출한다. 그런 다음 음성 신호를 하나의 음소로 판단되는 구간인 '음소 추정 구간'들의 배열로 바꾸어 준다. 그런데 음성 신호를 음소 단위로 정확히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음성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의 '단위 구간'으로 나누고, 이 단위 구간 하나만으로 또는 연속된 단위 구간을 이어 붙여 음소 추정 구간들을 만든다.

음성의 비교는 음소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음소 추정 구간에 해당하는 음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각 구간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각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하는 특징 벡터는 1개이다. 특징 벡터는 음소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음소 추정 구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1개로만 추출된다. 특징 벡터는 음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정보들을 이용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정보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음소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필요한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음성을 인식하려면 ㉠입력 패턴의 특징 벡터와 기준 패턴의 특징 벡터를 비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음소 추정 구간이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와 동일한 개수가 되도록 단위 구간을 조합한다. 그리고 각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를 구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입력된 음성 신호를  $S_1, S_2, S_3$  3개의 단위 구간으로 나눈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일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라면 3개의 음소 추정 구간으로부터 입력 패턴이 구성되어야 하므로  $[S_1, S_2, S_3]$ 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그런 다음 이것을 순서대로 기준 패턴의 음소와 일대일 대응시키고 각각의 특징 벡터의 차이를 구한 뒤 이것들을 모두 합하여 '패턴 거리'를 구한다. 만일 기준 패턴의 음소가 2개라면 3개의 단위 구간을 조합하여  $[S_1, S_2 \sim S_3], [S_1 \sim S_2, S_3]$ 로 2개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이와 같이 1개의 기준 패턴에 대해 여러 개의 입력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 사이의 패턴 거리를 모두 구하고, 그중의 최솟값을 그 기준 패턴에 대한 패턴 거리로 정한다. 만일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보다 크면 두 패턴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여 그 개수를 늘리면 음소 추정 구간을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기준 패턴에 대해 패턴 거리를 구하고 그중 최솟값이 되는 기준 패턴을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이 기준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입력된 음성 신호에 대해 인식된 단어로 출력한다.



4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음성 인식에서 말소리는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본다.
- ②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 신호를 추출한다.
- ③ 개인의 독특한 목소리는 음성 인식을 위한 특징 벡터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 ④ 입력 패턴은 음소 추정 구간의 특징 벡터들을 구간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 ⑤ 패턴 거리가 최솟값인 기준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인식된 단어로 출력한다.

44. 하나의 기준 패턴에 대해 ㉠을 ㉡에 적용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3개이면 입력 패턴에 들어 있는 특징 벡터는 3개이다.
- ②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3개이면 산출되는 패턴 거리는 1개이다.
- ③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이면 조합되는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은 1개이다.
- ④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이면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은 2개이다.
- ⑤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4개이면 패턴 비교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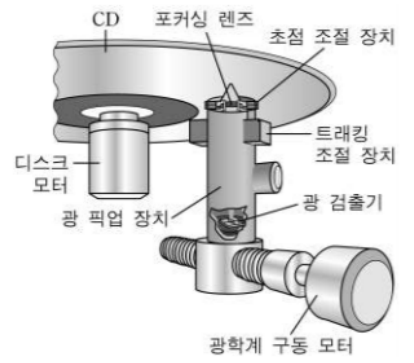
45. ㉠의 처리 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징 벡터를 구성하는 정보의 가짓수의 감소
- ② 기준 패턴을 구성하는 음소 개수의 감소
- ③ 저장된 기준 패턴 가짓수의 감소
- ④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의 감소
- ⑤ 음소 추정 구간 개수의 감소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11A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흡수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28. 윗글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 ②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준다.
- ③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 ⑤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2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군.
- ②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 되겠군.
- ③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겠군.
-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겠군.
- ⑤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군.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트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었을 때 <상태 1>과 <상태 2>에서 얻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다.

영역	전	후	좌	우
상태 1의 출력값	2	2	3	1
상태 2의 출력값	5	5	3	3

- ①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작다.
- ② <상태 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될 필요가 없다.
- ③ <상태 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되어야 한다.
- ④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되고, <상태 2>에서는 가운데 조사된다.
- ⑤ <상태 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



ICT

---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물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11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②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17.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 ②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 ③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 ④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8.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20. 문맥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 ②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 ③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
- ④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
- 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A]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 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공인 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給付)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 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 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 법규이다. 따라서 ㉢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의 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②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 ③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 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⑤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23.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ㄴ.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ㄷ.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ㄹ.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ㄴ, ㄹ

24.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 ② 계약 당사자들의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④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

25.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다.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셋째, 농지를 빌려 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①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 ②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③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 ④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⑤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26.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커피를 쏟아서 옷에 얼룩이 졌다.
- ② 네게 계속 신세만 지기가 미안하다.
- ③ 우리는 그 문제로 원수를 지게 되었다.
- ④ 아이들은 배낭을 진 채 여행을 떠났다.
- ⑤ 나는 조장으로서 큰 부담을 지고 있다.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17.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은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19.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2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잇따른다
- ② 다다른다
- ③ 봉착한다
- ④ 회귀한다
- ⑤ 기인한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B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평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평’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평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나**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은 것은 ‘정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17.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
- ② 개체의 본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
- ③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이 있다.
- ④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
- ⑤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18. 문맥상 ㉠과 ㉡의 관계와 같은 것은?

	㉠	㉡
①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칼
②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64세인 사람
③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④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헤엄칠 수 없는 고래
⑤	연필은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 도구이다	흑연 심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나)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 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 ②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

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 ③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 ④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겠네.
- ⑤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20. 윗글의 특성과 문맥을 고려할 때, ㉠~㉣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핵심어인 ㉠가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확인해야겠어.
- ②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앞의 설명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야겠어.
- ③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어.
- ④ 상반된 두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봐야겠어.
- ⑤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를 통해 강조되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겠어.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11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학과'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 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



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7.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 ② '그림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③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 ④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았다.
- ⑤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하였다.

18. 윗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 ② 물은 1기압에서 90℃에 끓는다.
- ③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 ④ 우리 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헌혈을 했다.
- ⑤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19. ㉠ : ㉡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언어 : 세계
- ㉡. 명제 : 사태
- ㉢. 논리적 그림 : 의미 있는 명제
- ㉣. 형이상학적 주제 : 경험적 세계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20. 윗글로 미루어 볼 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 버리듯이,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버려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① ㉠은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를 넘어서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은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11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값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값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

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㉔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값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㉔ 본다.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㉔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㉔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6.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17. ㉔, 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약 을이 ㉔이라면 을은 동시에 ㉕일 수 없다.
- ② ㉔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 ③ ㉔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을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④ ㉕은 을의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㉕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8.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19.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자.

○ 상황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㉔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㉔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㉕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㉕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병과 정은 ㉔와 ㉕ 이외에는 ㉔와 관련이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 적용  
[A]

- ① 병이 ㉔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㉔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 ② 병이 ㉔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㉔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군.
- ③ 병이 ㉔를 알게 된 후에 ㉕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㉔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㉕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 ④ 병이 ㉔와 ㉕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㉔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㉔와 ㉕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㉔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 ⑤ 병과 정이 ㉔를 알게 되기 전에 ㉔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㉔만을 알게 된 후에는 ㉔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 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

20. 문맥상 ㉔~㉕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㉔: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② ㉕: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 ③ ㉔: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 줄 분을 찾고 있다.
- ④ ㉕: 그는 젊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 ⑤ ㉔: 매장에서 현 냉장고를 새 선풍기와 바꿨다.

산상의 노래, 나무의 수사학 1

---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짹짹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뎌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 조상 :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나)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건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다)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 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A]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

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1. [A]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22.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겠군.
- ③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겠군.
- ④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
- ⑤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가)

생평(生平)에 원(元)하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흐고져 흐야 십재황황(十載惶惶)\*흐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흐야 여공불급(如恐不及)\*흐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흐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흐노라 <제4수>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흐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하니 오라 말라 흐노노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흐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 십재황황 :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 계교 : 견주어 헤아림.
- \* 부급동남 :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 함.
- \* 여공불급 :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 행장유도 :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 회보미방 :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 현 : 세상에 나아감.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덜위랑/드래랑/먹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들/기나긴 밤을/한 허리를/버혀 내어”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흐’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서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흔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19.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발’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매’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웅기’의 표면과 ‘울 엄매’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20.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울 엄매야 울 엄매’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ㅇ’을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 ⑤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쉽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11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굽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쫓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

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시다.

- ①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쫓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B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덤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린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있다. 한편, 전자는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주관적 정서의 표현에, 후자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상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①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 ③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군.
- ④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각각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33. ㉠, ㉡과 관련지어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을 나타낸다.
- ② (가)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 ③ (가)의 '찬란한 슬픔'은 ㉠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정서를 나타낸다.
- ④ (나)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나타낸다.
- ⑤ (나)의 '가볍게 눈을 쓰는'은 ㉡을 경험하기 위한 대상의 요건을 나타낸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09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낱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2」 -

\* 형형한 :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다)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A]

[B]

[C]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D]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E]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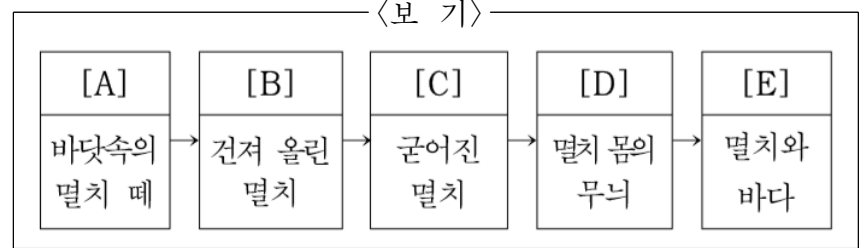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29.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A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A]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B]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 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과거 회상을 통해 반성적으로 화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밀둥'과 [B]의 '개울'은 실존적 위기감을 상징한다.
- ② [A]의 '한 계절'과 [B]의 '지는 해'는 극한 상황을 비유한다.
- ③ [A]의 '새순'과 [B]의 '등불'은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환기한다.
- ④ [A]와 [B]에는 모두 현실 부정의 비판적인 어조가 반복되고 있다.
- ⑤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33. 다음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활동 목표** : 시에 쓰인 어구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해 보자.

활동1 : 시상을 고려하여 ㉠과 관련된 어구를 시에서 찾아 표에 넣어 보자.

활동2 : 위의 어구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적어 보자.

활동3 : 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의 다양한 시적 의미를 해석해 보자.

활동 1의 탐구 결과	활동 2의 탐구 결과	활동 3의 탐구 결과
갈대	흔들리는 존재	㉠
하늘	초월적인 공간	㉡
바람	막을 수 없음	㉢
밤	부정적인 상황	㉣
손	만남의 대상	㉤

- ① ㉠: 1연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보면, ㉠은 굳건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뜻하겠군.
- ② ㉡: 1연과 3연에서 '하늘'의 아래를 반복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 ㉡은 초월적인 공간에 대응되는 현실적인 공간을 뜻하겠군.
- ③ ㉢: 3연에서 '바람'은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은 영원한 운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을 뜻하겠군.
- ④ ㉣: 3연에서 '밤'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 ㉣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을 뜻하겠군.
- ⑤ ㉤: 3연에서 '손'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 희망이 예비된 공간을 뜻하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B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쫓아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

\* 허적 :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꿉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쫓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붙거나  
고갯길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A]  
[B]  
[C]  
- 신경림, 「농무」 -

3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39. (가)의 [나]와 ㉠~㉣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③ ㉢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폐해져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줬다.  
③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줬다.  
④ a와 b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⑤ c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A

**소장수 A** : ……가만 계세요. 만약 내가 이 소를 샀다가두 나 중에 탄로가 나면……

**개똥이** : 멧덩구리 같으니라구! 그런 걱정은 여기서 헐 게 아냐! 자네가 입을 닥치구 있구 내가 입을 딱 씻어 버리구 있으면 누가 알아. 어느 개아들 늡이 안단 말야?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아예 말어.

이때에 울타리 바깥 행길에 밭에 갔다 오는 말똥이 나타난다. 말똥이는 빈 지계를 졌다. 개똥이와 소장수를 보고 무루청한다.\*

**말똥이** : (길에서) 개똥아 너 거기서 뭘 해? 그 사람은 누구야?

**개똥이** : ……허긴 뭘 해. 아모것두 아냐. 소에 꼴 주고 있어……

3장

이때에 또 국서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난다. 소장수와 개똥이는 슬슬 나가 버린다. 말똥이는 소 옆에 와서 좀 ㉠ 이상한 공기를 예감한 듯이 살핀다. 이상 없음을 보고 소를 도로 매어 둔다. 마름 앞서고 그 뒤에 국서, 그리고 그 처 헛간으로 들어온다.

**마름** : ……그러면 저 벧섬은 오늘 저녁나절까지 신작로 돌다 리께에 있는 논임자 곳간으로 저 내어다 두게.

**국서** : 네.

**마름** : 그러면 한 번 더 일러두고 갈 테니 잘 명심해 두게! 작 년치 떨어진 게 두 섬 여섯 말, 재작년치 떨어진 게 석 섬 두 말, 도합 닷 섬 여덟 말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와서 갇어진 것을 덜면 꼭 녀 섬 일곱 말이 떨어져 있단 말야!

**말똥이** : (옆에서 듣고 섰다가 통명스럽게) 그걸 어쩌야 한단 말 요?

**마름** : 금명간에 다 해다 갇으란 말야! 이늡이 왜 어른 말하는 데 쌍지팽이를 짚고 나서? 원 버르장머리 없게. ……국서 잘 듣게. 대관질 이번 봄부터 내가 몇 번을 타일른 줄 알아? 명 년부터서는 새로 농지령이란 게 실시된다구. ……그런 게 되면 실상 작인들은 살기가 좀 나아져. 그렇지만 그 대신 이번 추수까지에는 여태 묵은 것은 다 맡겨 봐야지. 그렇잖으면 내년 에 가서 피차에 귀찮스럽게 된단 말야. 도지가 묵었느 니, 떨어졌느니 허구 법정에 내걸더라도 말썽스럽게 되거든!

**국서** : 그러니까 나도 여태 여쭙 게 아납니까? 보시다시피 우 리는……

**마름** : 지금 와서 그런 소릴 해두 소용없다니까! 나는 그저 논임자가 하라는 대로 허는 사람이야. 만일 이번에 묵은 것 을 못 갖다 갇으면 좋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냐. 사 정없이 딱 잘라서 ㉡ 최후 결단을 지어 버리고 말 거란 말 야! 잘 알아 생각해!

**말똥이** : 아니 빠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 죠. 그러구 그게 무슨 말유? 올해가 풍년이래두 우리 집에 어디 쌀 한 톨 남었나 봐요! 막 뒤져 봐요!

**국서** : ……이늡 말똥아!

**마름** : 이 망할 자식 보게. 늡은 사람 앞에 막 샷대질을 허구 이늡이 덤비지! 에잇, 고약한 늡 같으니! (지팡이로 때린다.)

**말똥이** : (악을 쓰고) ……아버지 좀 봐요. 노……농지령이란

건 뭐야요? 그저 사람을 골릴려구! 최후 결단을 하면 어쩔 테야요? 어디 할 대루 해 봐요! 흥! 할래야 할 거나 있어야 말이지……

**국서** : (말리다가 못해 말똥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 저리 나가! 이늡, 버릇없어!

**마름** : 이런 분할 일이 있나! 그럼 못할 거라구! 두고 봐! 기 둥이라두 빼어 가두 빼어 가구 솔이라두 떼어 갈 테니까. ……흥 저늡의 소는 못 몰고 갈 줄 아나?

(중략)

**국서** : (말똥이더러 노하여) 이늡아 나가거라! 소는 그예 너 늡 때문에 날려 버리고 말었다! 이 빌어먹을 늡! 왜 아까 마름 헛테는 덤뻐어?

**처** : 이늡아, 너는 허는 짓짓이 미런스럽더라. 이 일을 어떡하 나? 이 일을.

**말똥이** : 아냐, 가만 있어. 내 소 팔어먹은 늡은 알어요. 저 그 쇠똥치란 소장수가 어떻게 생겼수?

**소장수 B** : 젊은 머리 깎은 녀석이지. 좀 똥똥허구.

**말똥이** : 똥똥허구 머리를 깎구…… 음! 그렇지! 이늡을 내가 죽여 버릴 테야.

**국진** : 네가 아니?

**말똥이** : 인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란 녀석이 웬 똥똥허구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래 가지구 이 감낭구 밑에 다다 소를 몰아 내놓구 한참 동안이나 뒤라구 쭈근거렸어 요. 그리고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소장수 B** : 그럼 그건가 봅네다. 아무러면 불 안 땀 굴뚝에서 연기 날려구요. (퇴장)

**국서** : 저런! 육실혈!

**처** : 이늡아. 똑똑이 못 본 일이거든 아예 입에 담지 말어라. 왜 그늡을 소도적늡으로 몰라구 그래?

**국서** : ……아냐. 그늡일는지도 몰라. 그늡이 소 팔어서 만주 보내 달라구 좀 성화를 부렸어야지.

- 유치진, 「소」 -

\* 무루청하다 : '무르춤하다'의 잘못. 뜻밖의 사실에 놀라 뒤로 물 러 서려는 듯이 하여 행동을 갑자기 멈추다.

34.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똥이'는 '개똥이'와 '국서'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 ② '국서'와 '말똥이'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도 '마름'에 대해 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 ③ '국서'는 '개똥이'의 예전 행동을 근거로 '말똥이'의 판단에 신 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말똥이'는 '소장수 B'가 제공한 정보에 의지하여 '개똥이'가 '소장수 A'에게 소를 넘겼다고 믿고 있다.
- ⑤ '마름'은 도지 갇기를 독촉하는 자신의 행동이 논임자의 지시 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국서' 부자의 불만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3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으로 인해 생긴 ‘말뚱이’와 ‘마름’ 간의 불화 때문에 ‘마름’이 ㉡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 한다.
- ② ㉠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 채고 ‘말뚱이’가 ㉡을 대비하면서 조성한 것이다.
- ③ ㉠으로 인해 ‘개똥이’는 ‘말뚱이’에 대한 증오심을, ㉡으로 인해 ‘마름’은 ‘국서’ 부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
- ④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뚱이’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뚱이’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⑤ ㉠으로 인해 ‘말뚱이’는 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라는 말을 듣고 ‘국서’는 ‘마름’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소」는 1935년에 발표된 유치진의 초기 사실주의 극이다. 사실주의 극은 다양한 연극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민다. 「소」는 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용어의 사용,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과 대화 상황의 제시,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사용 등을 통해 당대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나 관습 그리고 농촌 사회에 내재된 갈등 상황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 ① ‘소’, ‘울타리’, ‘빈 지게’, ‘헛간’ 등을 연극적 장치로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미고 있군.
- ② 인물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행동과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말투를 통해 갈등 상황을 실감 나게 제시하고 있군.
- ③ ‘마름’의 뒤를 따라가는 ‘국서’의 행동과 ‘국서’에게 지시하는 ‘마름’의 행동을 통해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농지령’, ‘작인’, ‘도지’ 등 농민과 관련된 법령 및 용어를 사용하여 무대 위의 상황이 당대의 농촌 현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늙은 사람 앞에 ~고약한 늑 같으니!’,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등의 대사를 통해 계층 간 위계 관계를 중시하는 당대 농촌 사회의 관습을 보여 주는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6A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육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세 놓고 육필이 ㉠(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육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육보다 읍의 배참봉 맥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육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 작인이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안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영금영금 기어 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육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굶신굶신하는 게 아닌가 —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썩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나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 놔다. 사날씩이나 건승 끄, 끄,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울갈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띄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여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이 미처 커야지. 조걸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원!” 하고 남 낮작만 붉게 해 주고 고만이다.

(중략)

그 전날 왜 내가 새고개 맞은 우리 ㉣ 화전밥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발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 붕,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벌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 ㉤(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어러이! 말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어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의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 ㉦(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 줄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순이를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올해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흰칠 히들 크건만 이걸 위아래가 몽툭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쟈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 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흑흑이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 없이 풀밭에서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앓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



지 밥을 먹는 겐지 —

그러나 ㉔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발머리에 곱게 내려 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텨가!” 하고 혼자서 종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셈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덩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㉕ (속으로)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 김유정, 「봄·봄」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사건을 현재 상황에 끌어 들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의 긍정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작중 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중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독자에게 전해 주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나'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 ② '나'는 '점순이'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 ③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점순이'에게 함부로 일을 시키는 '장인'의 태도 때문이다.
- ④ '동리 사람들'에게 '장인'이 인심을 잃게 된 주된 이유는 '나'와 '점순이'의 혼례를 치러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나'는 '동리 사람들'이 '장인'에게 보여 주는 태도와 상반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나'는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옹호한다.

36.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인물의 이름과 별명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㉒: 괄호를 제거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서술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③ ㉓: 소의 주인과 소를 동일시하여 '장인'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너무 빨리빨리 논다'라는 행동에 대한 '장인'의 평가를 첨가하고 있다.
- ⑤ ㉕: '점순이'가 부쩍 자란 사실을 숨겨 온 '장인'의 속셈을 알아내고 반가워하는 '나'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조할 때, ㉑~㉕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봄·봄」은 시·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들이 전개된다. 소설 속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단순히 물리적 시·공간을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물을 둘러싼 구체적 환경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태도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물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물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 ① ㉑: 대부분의 마름들이 장인과 같이 행동하다면, '가을'에 많은 소작농들은 불안감에 시달렸겠군.
- ② ㉒: '논'은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가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는 장소로군.
- ③ ㉓: '화전밭'에서 '나'는 생기 있는 봄의 분위기에 취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군.
- ④ ㉔: '밭'에서 '나'는 '장인' 때문에 생긴 울화를 '소'와 '점순이'에게 한껏 터트리고 있군.
- ⑤ ㉕: '이날'은 '순이'의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 '나'가 '점순이'의 본심을 알아채는 날이겠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06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짙은 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냇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갯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골평 논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

는가.”

[A]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낱낱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려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흑흑을 가릴쏘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 노복 중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기로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쏘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단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결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하루는 주효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결식하다가 맹랑춘 옹고집 활인구제한단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 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종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혜로 찾아갈 제, ㉢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천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결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접결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 난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히니 짚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결산승 육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B]

하고, 좌상에 나았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이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 선자 :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39.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다.
- 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다.
-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 ④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 ⑤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 ②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③ ㉢: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 ④ ㉣: ‘참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다.
- ⑤ ㉤: ‘참옹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 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 ③ ‘전곡을 훔쳐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됨을 알 수 있군.
- ④ ‘짚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훔쳐’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 ⑤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걸식’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42. <보기>는 「옹고집전」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몸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 할까. 너 같은 몸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하였군.
-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군.
- ⑤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09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 어땡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땡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앙(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댁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평이라고도 하는데, 귀택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빈적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커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급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벗하더니,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너덕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온데 양미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猪)도 갈분식(葛分食)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

(중략)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서대주 노비 쥐를 명하여 창고를 열고 이천 석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땃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앙한 짐승이라. 양지촌 장끼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 하고 하는 말이,

“자네는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하여 쌓아 두었는가?”

장끼가 협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자세히 말

하니, 딱부리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마음이 녹녹지 아니하거든 미천한 도적놈을 무엇이라 찾았는가?”

장끼 답왈,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했고, 내 가난하여 빌리러 갔기로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 대희하여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며 여차여차하였노라.”

하거늘 딱부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도다. 만일 입신양명하면 충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며 임금을 어둡게 하리로다.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推尋)\*하리라.”

장끼 답왈,

“자네 재주를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리로다.”

딱부리 웃으며 나와 협사촌을 찾아가, 구멍 앞에 나가서 생각은 많으나 이를 갈고 “서대주,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시비 쥐 나오며 하는 말이,

“뉘 집을 찾아오시니까?”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명색이 무엇이나?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나?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 일러라.”

하거늘 쥐란 놈이 골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 크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딱부리 애걸하며 비는 말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놓아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한데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다 꿇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 작자 미상, 「장끼전」 -

\* 현앙 :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함.

\*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 : 소와 말도 풀을 나눠 먹고, 산돼지도 칩을 나눠 먹는다.

\* 추심 :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 ③ 속담과 옛글을 삽입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33. ‘장끼’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각각 방문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서대주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
-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서대주를 대할 방식을 계획했다.
- ③ 서대주를 방문하여, 장끼는 시종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딱부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 ④ 서대주의 거처를 확인하면서, 장끼는 서대주의 환심을 살 만하게, 딱부리는 서대주의 반감을 살 만하게 표현했다.
- ⑤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을, 장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에 두었고 딱부리는 도적질을 벌로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 두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장끼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 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빛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 내고 있다.

- ① 장끼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는 장면에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②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현’에서 맞이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알 수 있군.
- ③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끼에게 딱부리가 ‘간사하도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서대주의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골을 내는 장면에서,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엿신여기는 신흥 부호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⑤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장면에서, 향촌 사회에서의 신흥 부호의 위세를 알 수 있군.

(가)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이라 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圃)'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姓)을 지녔다.

(나) 어느 날 ㉠밭,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밭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솔과 세발솔은 무얼 본떠 만들었나.

흥(興)이라.”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댔다.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둔갑하여 사람 시늉을 할 수 있다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킁킁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찌르고 머리를 왼편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영영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훁(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

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 자리에 서웁니다.”

범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듣건대, 유(儒)\*란 것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듣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북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웁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아침에 밭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웁니까?”

라 물으니, 북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러.”

- 박지원, 「호질」 -

\* 유(儒): 선비.

\* 유(諛): 아첨하다.

2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드러나 있다.
- ② (나)에 비해 (다)는 서술자의 서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된다.
- ③ (다)는 (라)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라)는 행위에 의해, (마)는 주로 대화에 의해 갈등이 해결된다.
- ⑤ (마)는 (가)와 구조 면에서 호응하여 작품의 완결성을 높여 준다.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② ㉡: 북곽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 ③ ㉢: 북곽 선생의 타락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④ ㉣: 북곽 선생의 위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 ⑤ ㉤: 북곽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에서 다섯 아들은 북곽 선생을 여우로 여기고 있다. 이는 북곽 선생의 위선을 풍자하기 위하여 작가가 마련한 설정으로, 그들이 여우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은 북곽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

- ① '여우가 사람 시늬를 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진정한 선비가 아님을 암시한다.
- ②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부를 이용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 ③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농부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행위를 예고한다.
- ④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린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범 앞에서 비위를 맞추려는 행위와 연결된다.
- ⑤ '여우를 잡아 죽이자'는 말은 북곽 선생이 봉변을 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28. (라)~(바)에 나타난 북곽 선생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화자찬(自畫自讚)
- ② 감언이설(甘言利說)
- ③ 임기응변(臨機應變)
- ④ 대경실색(大驚失色)
- ⑤ 전전긍긍(戰戰兢兢)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06

(가) 그맘쯤에 웬 난데없는 비렁뱅이 가객(歌客) 하나이 구부러진 등에 거문고 엇비슷이 메고 진창에 맨발을 축축 담그면서, 제가 아직 어찌 될 줄 모르고서 저자의 가운데길로 하염없이 내려왔던 것이었다. 거문고를 메었으니 노래라도 할 줄 알겠구나 싶었으며, 꼬락서니가 내 사촌이 틀림없었다. 나는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살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또랑물 속으로 싸락눈이 떨어져 녹아 사라지는 모양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 이상한 가락이 내 어깨 위에 미풍같이 나부끼며 었히고, 다시 목덜미로 깊숙이 꽃히더니 정수리에서 발뒤꿈치로 뚫고 들어와 땀돌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직하고 힘찬 목소리가 가락 위에 턱 걸쳐서는 이 싸늘하고 구죽죽한 저자를 따뜻하게 덥히는 것만 같았다. 나만 일어섰는가? 아니다. 내가 뒤가 급해진 느낌으로 안달을 온몸에 싣고서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에, 저자의 술집 창문마다 가게 빈지문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둘씩 끄집어내어지는 중이었다. 다리 위에서 비렁뱅이 가객은 거문고를 무릎에 올려 놓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여 머리가 없는 자처럼 땅속에다 소리를 심고 있었다. 술 먹던 사람들과 수다쟁이 떡장수 아낙네며 나들이 나온 처자들이 모두 한두 발짝씩

모여들어 다리 위에는 음률에 끌린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소리로구나. 저런 소리는 이 저자가 생겨난 이래로 처음 들었다.”

한 곡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제각기 허리춤을 끄르고 돈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잦아질 제나는 새암과 선망으로 이를 악물었고 다음에는 저 신묘한 소리로 돈을 벌게 하는 거문고를 박살 내 버리고 싶었다.

“하나 더 해라.”

“이번에는 긴 것을 해 보아라.”

사람들이 제각기 아우성을 치는데, 가객은 고개를 가슴팍에 콕 처박고 잠잠히 앉아 있었다. 그는 부지깽이처럼 길고도 여윈 손을 뻗쳐서 무릎 근처에 흩어진 돈들을 긁어모아서는 제 자리 밑에다 쓸어 넣는 것이었다.

“노래를 한 가지밖에 모르느냐.”

“얼굴을 들고 해라, 안 보인다.”

“고개를 들어라.”

내던진 밑천을 뽑으려고 주변에 웅기중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비렁뱅이 가객의 얼굴을 보려고 자꾸만 재촉했다. 고개를 처박고 있던 그가 작심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제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한 바퀴 휘이 둘러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회가 동했을 때처럼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가객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가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더러운 얼굴은 더욱 흉하게 일그러져 가락의 신묘한 아름다움은 그 추한 얼굴에 씩씩 사그라지고 말았다. 눈도 코도 입도, 제자리에 붙어 있건만, 어쩐지 얼굴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증오는 곧 심한 역증이 나게끔 했다.

[중략 줄거리] 가객 '수추'는 저자를 떠나 강을 건너간 뒤, 시냇가에서 음률을 완성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나)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음률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광야에서 몇 날 몇 밤을 짐승들이 일시에 몸서리치면서 달아났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곁에서 달아나는 일을 헤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달려서 자꾸만 여위어 갔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흰한 대낮에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이제 막 거문고의 가락에 었히려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이 끊긴 줄이 울어 대는 무참한 소리가 그의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거문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자르릉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부서지고 그의 노래마저 함께 부서져 버렸다. 그의 발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만이 즐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가운데서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노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수추는 파괴된 악기와 버려진 노래를 회상할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음과 같은 휴식 안에서 비로소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그의 눈은 삶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는 모든 산 것들이 그러하듯 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하였다.

- 황석영, 「가객」 -

2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역전을 보여주고 있다.
- ②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하여 그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두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인물이 겪는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 ③ (가)와 (나)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에서 해소되고 있다.
- ④ (나)에 비해 (가)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 ⑤ (가)의 저자 사람들과 (나)의 짐승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모여 들고 있다.

28. ㉠과 ㉡의 공통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추의 자기 확인을 매개한다.
- ② 수추가 처한 고난을 상징한다.
- ③ 수추의 과거 회상을 유도한다.
- ④ 수추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한다.
- ⑤ 수추의 불가피한 운명을 암시한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속의 '예술가·작품·사회·수용자'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예술 작품의 수용은 예술가와 작품, 예술가와 수용자, 작품과 사회,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관계와 작품 자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① 다리 아래에서 '수추'의 첫 노래를 들은 '나'는 수용자로서 작품 자체에 자극받아 예술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군.
- ② '수추'의 첫 노래를 듣고 저자 사람들이 돈을 내던지는 것을 본 '나'는 작품이 수용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깨닫고 있군.
- ③ '수추'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그의 두 번째 노래를 들은 저자 사람들은 작품을 예술가와 연계하여 수용하고 있군.
- ④ 강을 건너간 뒤에 노래를 부르는 '수추'는 자기 작품 속에 형상화된 사회에 대해 수용자가 보인 반응을 의식하고 있군.
- ⑤ 강을 건너간 뒤에 거문고를 부숴 버린 후, '수추'는 예술가인 자신의 용모와 자기 작품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군.



관동별곡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9B

㉠ 양파(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치 느껴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비에 다 피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머겨 논밭 갈게 하야라  
 <제2수>

㉡ 잔화(殘花) 다 딛 후에 녹음이 기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둑의 소리로다  
 ㉢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롭 씨오자  
 <제3수>

동리(東籬)에 국화 피니 중양(重陽)이 거에로다  
 자채(自蔡)\*로 비즌 술이 하마 아니 니것느냐  
 ㉣ 아히야 자해(紫蟹)\* 황계(黃鷄)로 안주 장만 하야라  
 <제6수>

북풍이 노피 부니 압 피혜 눈이 던다  
 ㉤ 모침(茅簷)\* 촌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두죽(豆粥) 니것느냐 먹고 자라 하로라  
 <제7수>

이바 아히들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현스흔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 하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9수>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양파 : 벌이 잘 드는 언덕.  
 \* 자채 : 올벼. 철 이르게 익은 벼.  
 \* 자해 : 꽃게.  
 \* 모침 : 초가지붕의 처마.  
 \* 소년 : 젊은 나이.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가 지향했던 초월적인 삶의 세계가 회고된다.
- ② ㉡: 꽃이 떨어진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제시된다.
- ③ ㉢: 시름을 일시적으로나마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표출된다.
- ④ ㉣: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을 통해 화자의 흥취가 드러난다.
- ⑤ ㉤: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집약되어 나타난다.

32.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늘그니 늘그니를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  
 반가고 즐거오니 늘근 줄을 모를로다  
 진실노 늘근 줄 모르거니 미일 만나 즐기리라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제49수 -

- ① [A]와 <보기>는 모두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와 <보기>는 모두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을 구체적 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대한 훈계가, <보기>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를 만난 기쁨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태도가, <보기>에서는 상대를 통해 현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태도가 드러난다.

3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시가(四時歌)는 사계절의 추이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를 일컫는다. 사시가에서는 계절에 관한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 및 구절을 먼저 제시한 후 화자의 반응이나 정취를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도 한다.

- ① 사계절의 추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의 요건을 갖추고 있군.
- ② '아히야'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연 사이의 유기성을 부여하고 있군.
- ③ 계절이 다루어진 연은 자연의 모습이 먼저 묘사되고 화자의 반응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성되는군.
- ④ 봄에 소를 먹여 논밭을 가는 것과 가을에 올벼로 빗은 술을 찾는 것은 일상의 풍경을 그려 낸 사례이겠군.
- ⑤ 각 연에서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군.

(가)

문장(文章)을 흐자 하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공맹(孔孟)을 비호려 하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  
及)\*이로다

이 내 몸 쓸 디 업스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

홍진(紅塵)에 절교(絶交)하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하야  
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름 업시 늘거 가니  
이 둥의 무한지락(無限至樂)을 현스홀가 두려웨라  
〈제3장〉

인간(人間)의 벗 잇단 말가 나는 알기 슬희여라  
물외(物外)에 벗 업단 말가 나는 알기 즐거웨라  
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흐노라  
〈제6장〉

유정(有情)코 무심(無心)홀 손 아마도 풍진(風塵) 봉우(朋友)  
무심(無心)코 유정(有情)홀 손 아마도 강호(江湖) 구로(鷗鷺)  
㉠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을 췌드룬가 흐노라  
〈제8장〉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홀 제와 태부(太傅) 결해귀(乞  
骸歸)\*홀 제  
호연(浩然) 행색(行色)을 뉘 아니 부러호리  
알고도 부지지(不知止)\*하니 나도 몰나 흐노라  
〈제9장〉

인간(人間)의 풍우(風雨) 다(多)하니 므스 일 머므는노  
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하니 므스 일 아니 가리  
이제는 가려 정(定)하니 일흥(逸興) 계워 흐노라  
〈제11장〉  
- 안서우, 「유원십이곡」 -

- \* 인생식자 우환시 :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 도약등천 불가급 :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움.
- \* 성대농포 :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 \* 작비금시 :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음.
- \* 도팽택 기관거 :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남.
- \* 태부 결해귀 : 한나라 태부 소광이 사직을 간청함.
- \* 부지지 :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함.

(나)

어느 날 나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다. 정신이 산란  
하고 병이 아닌데 병이 든 듯하여 그 원기가 상했다.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  
었다. 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말하게 했다.

“네가 내 속에 숨어들어서 큰 병이 났다. …(중략)… 게을러  
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솔밭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져도 게을러서 깎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침내 날로 행동은 굼떠 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며, 용모는 날로 여위어 갈 뿐만 아니라 말  
수조차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허물은 내가 내게 들어와

멋대로 함이라. 어째서 다른 이에게는 가지 않고 나만 따르  
며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 저 낙토(樂土)로  
가거라. 그러면 나에게는 너의 피해가 없고, 너도 너의 살  
곳을 얻으리라.”

이에 귀신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  
까? 운명은 하늘에 있으니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굳센 쇠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 깨끗한 것은 더  
러워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굳은 돌은 고  
요함으로 이지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영원한 것  
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  
다. 지금 당신은 저 산처럼 오래 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서는 세상의 근면은 화근이, 당신의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좇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러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  
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  
에게 어느 것이 흉하고 어느 것이 길한 것이겠습니까? 당신  
이 이제부터 유지(有知)를 버리고 무지(無知)를 이루며, 유  
위(有爲)를 버리고 무위(無爲)에 이르며, 유정(有情)을 버리  
고 무정(無情)을 지키며, 유생(有生)을 버리고 무생(無生)을  
즐기면, 그 도는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울 것인데, 도  
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자신의 처지를 아십시오. 그래서야 어  
디 되겠습니까?”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 앞으로 나의 잘못  
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  
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다.

- 성현, 「조용(嘲慵)」 -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진술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주어진 삶에 순응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 내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유원십이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 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 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제1장>의 초장에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드러난다.
- ② <제3장>의 중장에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드러난다.

- ③ <제6장>의 중장에는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음이 드러난다.
- ④ <제9장>의 중장에는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⑤ <제9장>의 중장에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11장>의 중장에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34. 절교와 위위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봉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백운'과의 '위위'를 통해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화자가 '위위'하고자 하는 '구로'는 '물외에 연하 죽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화자가 '물외에 벗'과 '위위'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5. ㉠과 ㉡을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화자는 '공맹을 비호'기 위해 '성대농포'의 길을 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 ② ㉡의 '나'는 '태초와 하나가' 되게 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며 '굳센 쇠'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을 다짐하고 있다.
- ③ ㉠의 화자는 '녹수 청산'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의 '나'는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의 화자는 현재의 삶이 옳음을 '찌드런가'로 밝히고, ㉡의 '나'는 반성의 태도를 '고칠 터이니'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의 화자는 '풍우 다'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 '나'는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던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용」에서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준다.

- ①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필자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군.
- ②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하는 것에서,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생각을 알 수 있겠군.

- ③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④ '나'가 게으름 덕분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⑤ '나'가 게으름 덕분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시각을 알 수 있겠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09

(가)

㉠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호고  
 넷사롬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에 못쳐 이셔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이 다룰소나  
 시비에 거러 보고 ㉢ 정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하야 산일(山日)이 적적혼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이란 오늘 호고 욱기(浴沂)란 내일 호새  
 아춤에 채산(採山)호고 나조히 조수(釣水)호새  
 갓 피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 시넷그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쩌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이 갓잡도다 저 밭이 권 거인고

- 정극인, 「상춘곡」 -

- \* 울울리 : 뽁뽁하게 우거진 숲.
- \* 소요음영 :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나)

㉠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롬이 모로더니  
 주모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니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를 상상호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1수>  
 일곡은 어디미오 ㉡ 관암에 히 비쨌다  
 평무(平蕪)에 니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이곡은 어디미오 화암에 춘만(春晚)커다

벽파\*에 곳을 씩워 야외로 보노라

㉔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게 혼들 엇더리 <3수>

오곡은 어디미오 은병(隱屏)이 보기 도타

수변(水邊) 정사는 소쇄홈\*도 ㅁ이 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 흐리라 <6수>

칠곡은 어디미오 ㉕ 풍암에 추색(秋色) 도타

청상(淸霜) 얹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 | 로다

한암(寒巖)에 혼즈셔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8수>

구곡은 어디미오 문산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무쳐세라

㉖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흐고 볼 것 업다 흐더라 <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

\* 녹준 : 술잔 또는 술동이.

\* 벽파 : 푸른 물결.

\* 소쇄홈 : 기운이 맑고 깨끗함.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㉑~㉔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되며,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관습화되었다.

- ① ㉑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② ㉒에서는 청자를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하고 있다.
- ③ ㉓에서는 화자가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 ④ ㉔에서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㉔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18.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19. ㉑~㉔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거처인 ㉑를 나와 ㉒와 ㉓의 장소들로 옮겨다니고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㉑와 ㉔는 ㉒를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㉒와 ㉓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㉑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㉒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㉓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㉔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려 한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 ① 고산구곡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곡이 작자와 '벗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 ②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⑤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가)

동녘 두던 밭기 크나큰 너븐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흰 빗치 되야 있다  
 중앙이 거의로다 내노리 헝자스라  
 붉근 게 여물고 높은 둑기 슬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술소냐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흘 긴 물래에 밤불이 불가지니  
 ㉠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잇고  
 호두포\* 엔 구비에 아적물이 미러오니  
 ㉡ 돛둔비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푼는 당시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A]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감시 이실 거시런들  
 적막히 다든 문애 내 분으로 드려오라  
 사조(私照)\*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 모재(茅齋)\*에 빗친 빗치 옥루(玉樓)라 다룰소냐  
 청준(淸樽)을 밧째 열고 큰 잔의 ㄴ득 브어  
 ㉣ 죽엽(竹葉) ㄴ는 술를 들빋 조차 거후로니  
 표연흔 일흥(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이적선(李謫仙) 이려햐야 들을 보고 밧치닷다  
 춘하추동에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애 완상이 새로오니  
 ㉤ 몸이 한가흐나 귀 눈은 겨를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륜이나 다룰소냐  
 ㉥ 강호 어조(魚鳥)애 새 밧세 집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셋기엿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서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호노라  
 이 몸이 이러구롬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신계영, 「월선현십육경가」 -

- \* 호두포 : 예산현의 무한천 하류.
- \* 애내성 :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 사조 : 사사로이 비춤.
- \* 모재 : 띠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 옥당금마 : 관직 생활.
- \* 몽혼 : 꿈.

(나)

어촌(漁村)은 나의 밧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부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증자가 상송(商頌)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엄자룡**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샷갓을 걸치고 그물을 건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빗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중략)...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 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 권근, 「어촌기」 -

\* 성사 : 옛날 장군이 타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배.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 ②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 ③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7세기 가사 「월선헌십육경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흥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블근 계'와 살진 '눌은 둥'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블이 불가시니'와 '아적물이 미리 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23. (나)의 '공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 ③ 상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 ④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촌기」의 작가는 벗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벗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에 대한 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며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 ① 벗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벗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 ② 작가가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통해 벗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벗이 '강태공'과 '엄자룡'을 들어 '내가 감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벗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군.
- ⑤ 작가가 벗이 '대과에 급제'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에 사욕이 없다'고 평한 것을 통해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김을 알 수 있군.

25. ㉠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 ②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어 '강호'에 은거하려는 소망을 나타낸다.
- ③ ㉠은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 ④ ㉠은 '내가 '강호'에서 늙어 감에 체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지향함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는 염원을 나타낸다.
- ⑤ ㉠은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며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나타낸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B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매오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 구만 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 말동  
차라리 식어지어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A]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녀이 되어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올거든  
삼청동리(三清洞裡)\*에 저문 하늘 ㉡ 구름 되어  
㉢ 바람에 흘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玉皇) 향안 전(香案前)의 지척(咫尺)에 나아 앉아 [B]  
흉중(胸中)에 쌓인 말씀 쓸커시 사되리라  
어와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늦게 나니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끝이 없고  
가 태부(賈太傅)\*의 녀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落)하  
니  
㉤ 백구(白鷗)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루는 듯 괴는 듯 남의 없는 입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오색(五色)실 이음 짝아 임의 옷을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秋毫)나 갚으리라  
백옥(白玉)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더니 [C]  
장안(長安)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  
일모 수죽(日暮脩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할사\* [D]  
유란(幽蘭)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E]  
약수(弱水)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삼청동리 : 신선이 사는 동네 안.  
\* 초객 : 나라의 시인 굴원.  
\* 가 태부 : 한나라의 태부 가의.  
\* 일모 수죽 : 해 질 녘 긴 대나무.  
\* 취수도 냉박할사 : 푸른 옷소매도 차디차구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여 상대방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④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훈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경물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44.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
- ② ㉡: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 ③ ㉢: 화자와 대상의 만남을 도와주는 매개
- ④ ㉣: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
- ⑤ ㉤: 화자가 교감을 나누는 존재

45.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만분가」는 유배를 간 작가가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연군(戀君)의 마음을 표현한 유배 가사의 효시이며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가사 문학의 대표작인 「속미인곡」 역시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만분가」의 형식을 계승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보기 2>—  
모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가]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여 풋잠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옥(玉) 같은 얼굴이 반(半)이 넘게 늙으셨네 [나]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삶자 하니 [다]  
눈물이 바라 나니 말씀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었으니  
방정맞은 계성(鷄聲)에 잠은 어찌 깨었는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결에 일어나 앉아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라]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식어지어 낙월(落月)이나 되어 있어 [마]  
임 계신 창(窓)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 ① [A]와 [마]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B]와 [다]에는 마음에 담아 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 ③ [C]와 [나]에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 ④ [D]와 [가]에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함이 담겨 있다.
- ⑤ [E]와 [라]에는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늬야 늣뉘던고  
 ㉠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넘거나 넘은 천하 엇찌호야 적닷 말고  
 ㉡ 어와 더 디위를 어이호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호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원통골 7는 길로 사자봉을 차자가니  
 그 알핀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천 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너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여  
 외나모 뼈근 드리 불정대(佛頂臺) 올라호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半空)애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7티 플터이서 뵈7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이서 고터 의논호게 되면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호려니  
 산중을 미양 보랴 동해로 가자스라  
 ㉤ 남여(籃輿) 완보(緩步)호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호니  
 영룡벽계(玲龍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는 이별을 원(怨)호는  
 듯

[A]

- 정철, 「관동별곡」 -

(나)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  
 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  
 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 데 아홉  
 길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 엇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  
 는 것이 되어,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들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쪽 가의 오목 한  
 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  
 가 터져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이었다. 주위  
 가 1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  
 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얇은 곳은 무  
 료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찻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기  
 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  
 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  
 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썩 주  
 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  
 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 조심스럽  
 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  
 다.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달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 바  
 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B]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웅기중기 널려 있는 섬

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  
 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  
 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 최익현, 「유한라산기」 -

\* 부상 : 해가 뜨는 동쪽 바다.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어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현상에 비  
 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최  
 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  
 하고 있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  
 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 추가하여 백록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혀 등정 과정이 힘들었음  
 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는 (가)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천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울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꺾득 노흔 고래 뒤라셔 놀내관디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육합(六合)의 느리는 듯  
 오월(五月) 장천(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스 일고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보기>는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③ [B]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화자가 '화룡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 ②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
- ③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 '백록담'에서 실감한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고 있군.
- ④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 '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데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글쓴이는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06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논 질삼뵤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1연>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긴히썸 아즐가 긴히썸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A]  
 즘흔 히를 아즐가 즘흔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2연>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식여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식여지어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空山) 축루(觸露)\*같이 임자 업시 구닐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의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이셔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輪廻) 만겁(萬劫)호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므음껏 솟아올라  
 ㄱ을 들 볼근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우러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혼(恨)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밧긔 외나모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月中) 소영(疎影)\*이 님의 옷에 빗취어든  
 어엿븐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가  
 동풍이 유정(有情)호여 암향(暗香)을 불어 올려  
 고결(高潔)흔 이내 생애 죽림(竹林)에나 부치고져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톱을 혼자 띄워  
 백구(白溝) 건네 저어 건덕궁(乾德宮)에 가고지고  
- 조위, 「만분가」 -

\* 공산 축루 : 텅 빈 산의 해골.  
 \* 침변 : 베갯머리.  
 \* 월중 소영 :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서울'과 (나)의 '건덕궁'은 모두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가)의 '질삼배'와 (나)의 '빈 낙대'는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 ③ (가)의 '우리곶'과 (나)의 '슬피 우리'는 모두 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쫓니노이다'와 (나)의 '빚치어든'은 모두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그즈리잇가'와 (나)의 '반기실가'는 모두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자 업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 ②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
-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에게 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여 '훈'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그을 들 불근 밤'과 '월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임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경별곡」의 제2연에서 여음구를 제외한 부분은 당시 유행하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정석가」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고려 시대의 문인 이제현도 당시에 유행하던 민요를 다음과 같이 한시로 옮긴 적이 있다.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縱然巖石落珠璣	} [B]
끈은 진실로 끊어질 때 없으리.	纓縷固應無斷時	
낭군과 천 년을 이별한다고 해도	與郎千載相離別	
한 점 붉은 마음이야 어찌 바뀌리오?	一點丹心何改移	

- ①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군.
- ②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하였군.
- ③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군.
- ④ [A]와 [B]를 보니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군.
- ⑤ [A]와 [B]를 보니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군.

전우치

이때 함경도 가달산에 한 도적이 있어 재물을 노략하며 인민을 살해하며 본읍 원이 관군을 발하여 잡으려 하되 능히 잡지 못하고 나라에 장계(狀啓)하니, ㉠ 상이 크게 근심하사 조정에 전지(傳旨)하사 도적을 칠 계책을 의논하라 하시니, 우치 아뢰길,

“도적의 형세 심히 크다 하오니 신이 홀로 나아가 적세를 보온 후 잡을 묘책을 정하리이다.”

㉡ 상이 크게 기뻐하사 어주(御酒)와 인검을 주시 왕,

“적세 심히 크거든 이 칼로 사졸을 호령하라.”

하시니, 우치 사은하고 물러 나와 즉시 말에 올라 장졸을 거느리고 여러 날 만에 가달산 근처에 다다라 보니 큰 산이 하늘에 닿은 듯하고 수목이 뻗뻗하며 기암괴석이 첩첩하니 가장 험악한지라, 우치 군사를 산하에 머무르고 스스로 하사하신 인검을 가지고 몸을 흔들며 변하여 술개 되어 가달산을 바라보고 가니라.

원래 가달산 산에 수천 명 적당 중에 한 괴수가 있으니, 성은 엄이요 명은 준이라. 용맹이 절륜하고 무예 출중하더라.

이때 우치 공중에서 두루 살피더니, 엄준이 엄연히 홍일산\*을 받고 천리백총마(千里白驄馬)를 타고 채의홍상(彩衣紅裳)한 시녀를 좌우에 벌이고 종자 백여 인을 거느리고 바야흐로 사냥을 하거늘, 우치 자세히 살펴보니 기골이 장대하고 신장이 팔척이요 낮빛이 붉고 눈이 방울 같으며 수염은 바늘을 묶어 세운 듯하니 곧 일대 걸물이라. 엄준이 추종들을 거느리고 이끌 저 골로 한바탕 사냥하다가 분부하되,

“오늘은 각처에 갔던 장수들이 다 올 것이니 마땅히 소 열필만 잡고 잔치하리라.”

하는 소리 쇠북을 울림 같더라.

이때 우치 일계를 생각하고 나뭇잎을 훑어 신병을 만들어 창검을 들리고 기치를 벌여 진을 이루고, 머리에 쌍봉투구를 쓰고 몸에 황금 갑옷에 황색 비단 전포를 겹쳐 입고 천리오추마(千里烏騮馬)를 타고 손에 청사양인도(靑蛇兩刃刀)를 들고 짓쳐 들어가니, 성문을 굳게 닫았거늘 우치 문 열리는 진언을 염하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들어가며 좌우를 살펴보니 장려한 집이 두루 펼쳐졌고 사방 창고에 미곡이 가득하며 차차 전진하여 한 곳에 이르니, 전각이 굉장하여 주란화동\*이 반공에 솟았거늘, 우치 이윽히 보다가 몸을 변하여 술개 되어 날아 들어가 보니, 으뜸 도적이 황금 교자에 높이 앉고 좌우에 제장을 차례로 앉히고 크게 잔치하며 그 뒤에 대청이 있으니 미녀 수백 인이 열좌하여 상을 받았거늘, 우치 하는 양을 보려 하고 진언을 염하니, 무수한 수리가 내려와 모든 장수의 상을 견어 치워 가지고 중천에 높이 떠오르며 광풍이 대작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러한 운문차일과 수놓은 병풍이 움직여 공중으로 날아가니, ㉢ 엄준이 정신을 진정치 못하여 뜰 아래 나뭇등걸을 붙들고 모든 군사가 차반을 들고 바람에 떠서 구르더라.

(중략)

이때 우치 문사낭청\*으로 임금을 모시고 있더니, 불의에 이름이 역도(逆徒)의 진술에 나오는지라. ㉣ 상이 크게 노하사 왕,

“우치의 역모를 짐작하되 나중을 보려 하였더니, 이제 발각되었으니 빨리 잡아 오라.”

하시니, 나졸이 명을 받아 일시에 달려들어 관대를 벗기고 옥계 하에 꿇리니, ㉤ 상이 진노하사 형틀에 올려 매고 죄를 추

궁하며 왈,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작난함도 용서치 못할 바 이거늘, 이제 또 역모를 꾸몄으니 변명하나 어찌 면하리오?” 하시고, 나졸을 호령하사 한 매에 죽이라 하시니, 집장과 나졸이 힘껏 치나 능히 또 매를 들지 못하고 팔이 아파 치지 못하거늘, 우치 아뢰되,

“신이 전일 죄상은 죽어 마땅하오나, 금일 일은 만만 애매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고, 심중에 생각하되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않으시리라.’ 하고 다시 아뢰길,

“신이 이제 죽사올진대 평생에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올지라. 지하에 돌아가오나 원혼이 되리니 원컨대 성상은 원을 풀게 하옵소서.”

㉥ 상이 헤아리시되, ‘이놈이 재주가 능하다 하니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왈,

“네 무슨 능함이 있어 이리 보채느냐?”

우치 아뢰길,

“신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잘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기어가고 산을 그리면 초목이 나서 자라오매 이러므로 명화라 하오니, 이런 그림을 전하지 못하옵고 죽사오면 어찌 원통치 않으리잇고?”

㉦ 상이 가만히 생각하시되, ‘이놈을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로움이 있을까.’ 하여 즉시 맨 것을 끌러 주시고 지필을 내리사 원을 풀라 하시니, 우치 지필을 받자와 산수를 그리니 천봉만학과 만장폭포가 산 위로부터 산 밖으로 흐르게 그리고 시냇가에 버들을 그려 가지 늘어지게 그리고 밑에 안장 엮은 나귀를 그리고 붓을 던진 후 사은하되, 상이 물어 왈,

“너는 방금 죽을 놈이라. 사은함은 무슨 뜻이뇨?”

우치 아뢰길,

“신이 이제 폐하를 하직하옵고 산림에 들어 여년을 마치고자 하와 아뢰나이다.”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 동구에 들어가더니, 이윽고 간 데 없거늘 상이 크게 놀라사 왈,

“내 이놈의 피에 또 속았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하시고 그 죄인들은 내어 베라 하시고 친국을 파하시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 홍일산 : 붉은 양산.

\* 주란화동 : 단청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집.

\* 문사낭청 : 임금의 심문 내용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직분.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함경도 고을 원이 도적을 잡지 못해 우치가 토벌할 기회를 얻었다.
- ② 임금은 우치에게 어주와 인검을 내려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였다.
- ③ 엄준은 성 안의 큰 전각에서 장수들과 미녀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였다.
- ④ 집장과 나졸이 우치를 한 매에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우치는 임금에게 용서를 청했다.
- ⑤ 우치는 과거의 죄와 역모의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것을 듣고 임금에게서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을 유발한 우치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다.
- ② ㉢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에 대한, ㉣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사라진 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 준다.
- ③ ㉣으로 인해 형성된 임금과 우치의 갈등에 제삼자가 개입하여 ㉣을 촉발하고 있다.
- ④ ㉢에서 ㉣으로의 변화는 임금과 우치의 갈등 원인이 제거되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⑤ ㉢과 ㉣은 우치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전우치전」은 전우치가 사건 해결을 주도하는 '전우치 설화'를 토대로 다양한 삽화가 결합된 소설이다. 각각의 삽화들은 서로 긴밀하지는 않지만 주인공의 도술 사용을 연결 고리로 하여 결합된다. ㉠ 업준 토벌 삽화와 ㉡ 역모 누명 삽화가 그 예로서 주인공이 조력자 없이 도술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그에게 신비감을 부여하고 이야기에 환상성을 더한다. 또한 다양한 도술 사용은 다음 삽화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한다.

- ① ㉠과 ㉡는 사건 해결을 우치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군.
- ② ㉠과 ㉡에서 삽화마다 각기 다른 도술이 사용된 것은 독자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하는군.
- ③ ㉠과 ㉡는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연결 고리로 하여 결합되는군.
- ④ ㉠과 ㉡에서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야기에 환상성을 더하는군.
- ⑤ ㉠에서 솔개로 변하는 장면과 ㉡에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주인공에게 신비감을 부여하는군.

40.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 ③ 우후죽순(雨後竹筍)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혼비백산(魂飛魄散)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09

길동이 대회하여 채문 안에 들어가니 비단 병풍을 치고 영웅 호걸 수백이 앉았는지라. ㉠ 그중에 상좌(上座)의 사람을 보니, 청포운삼에 자금관을 쓰고 팔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하니, 길동이 거만하게 들어가 길게 읊만 하고 절하지 않으며, 좌우 중인을 하찮게 여기고 윗자리에 앉으니, 청포 입은 사람이 먼저 문왈,

“소년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뉘라 하느뇨?”

길동이 대왈,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서울 장안에 있는 흥 정승의 아들이러니, 들은즉 활빈당에 천하 역사(力士) 모여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왔나니,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와 ㉡ 시합할 쏘냐?”

그 사람들이 길동의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볼 뿐 답을 못하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방목(榜目)을 지어 가지고 쓴 ㉢ 글을 내여 왈,

“그대는 이 세 가지를 행할쏘냐?”

[가] 하거늘 길동이 받아 보니,  
 “제일은 이 앞에 초부석(樵夫石)이란 돌이 있으되 무게 천 근이라, 능히 그 돌을 들면 우리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요, 제이는 무쇠로 철관을 만들었으니 무게 오백 근이라, 그 철을 쓰고 이 앞 돌문 삼백 단을 세웠으니 그 돌문을 뛰어넘으면 가히 그 용맹을 알 것이요, 또한 해인사라 하는 절이 있으되 재물이 누거만(累巨萬)이요, 그 절 중의 용맹이 과인하기로 우리 등이 마음대로 못하는 고로,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 상장군 자리에 모시려 하나이다.”

길동이 한 번 보고 대소 왈,  
 “이 세 가지를 어렵다 하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리오?”

하고, 모든 역사를 데리고 초부석 있는 곳에 나아가 혼연히 소매를 걷고 그 돌을 잡아 공중에 던지니, 그 돌이 미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로 돌을 차니 수십 보 밖에 내려지는지라. 중인이 대경하여 또 돌문 앞에 나아가니, 길동이 또한 ㉤ 철관 오백 근을 쓰고 돌문 삼백 단을 넘어가니, 모든 무리 일시에 고함하여 왈,

“천하장사로드!”

하고 용력을 칭찬하고, 길동을 장군 자리로 모신 후에 여러 도적 천여 명이 일시에 자리 아래 엎드려 군례(軍禮)를 마친 후에 그 용맹을 치하하더라.

(중략)

상이 하교하사 왈,  
 “경은 자식을 분명히 알지라. 저 많은 길동 중에 경의 자식을 잡아내라.”

하신대, 흥 의정 주왈,  
 “신의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의 붉은 기미, 용의 비늘 같은 일곱 점이 있사오니, 그를 보면 알리이다.”

상이 그리 여겨,  
 “빨리 잡아들여 수검(搜檢)하여 보라.”

하신대, 흥 의정이 물러나와 길동을 바라보고 왈,  
 “내 자식 길동은 빨리 나와 나를 보라.”

한대, 무수한 길동이 흥 의정을 보고 다 나와 절하여 왈,  
 “부친께선 강녕하시나이까?”



하거늘, 홍 의정 왈,

“내 자식은 왼쪽 다리에 검은 일곱 점이 있으니, 일곱 점 있는 자 길동이라.”

하니, 많은 길동이 홍 의정 말을 듣고 일시에 다리를 걷고 보이니 각각 일곱 점이 있는지라. 홍 의정이 할 수 없어 상께 주왈,

“신의 역자(逆子)를 조사하여 밝힐 수 없사오니, 황공 대죄 하나이다.”

상이 진노하사 길동을 보시고 왈,

“너희 등은 물러가 임의로 하라.”

하시고 금부도사를 명하여 다 물러 보내라 하시니, 모든 길동들이 나올새 종일토록 나오더니, 그제야 참 길동이 다시 궐내에 들어가 명을 받들고 절하며 슬피 통곡하여 왈,

“신의 아버 대대로 국은을 입었거늘 신이 어찌 나라를 저버리리까? 신의 몸이 천비(賤婢)에서 나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제 몸이 천대를 받으며, 여의주 없는 용이요 날개 부러진 봉이라, 어찌 장부의 힘을 갖고 속절없이 집안에서만 늙으리까? 그러므로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 각 읍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을 자랑함이요, 상의 어위대장 이흠을 속임도 재주를 보임이요, 또 신의 가슴에 경서와 병서와 음양조화며 세상을 다스릴 재주를 지녔사오니 어찌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오리까? 복걸 ㉡ 상께서 신에게 병조판서 삼 년만 제수하시면 남의 천대를 면하옵고 충성을 다하여 상을 받들리다.”

상이 길동의 아뢰를 듣고 탄식하여 왈,

“난세의 영웅이로다. 어찌 쓰지 아니 하리요?”

즉시 공부상서를 명해 홍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하니,

㉢ 뒷일은 어찌 되고? 다음 권을 볼지어다.

- 「홍길동전」 -

2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한다.
- ② 길동은 활빈당 무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 ③ 홍 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 ④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 ⑤ 상에게 길동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27.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길동이 활빈당 무리와 한편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② ㉡는 길동에게 활빈당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 ③ ㉢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에 제시된 과제를 통과하면 차지할 지위이다.
- ④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와 ㉢는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무리들과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와 ㉢는 이를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길동전」은 19세기에 오면 특정 대목을 확대·변형한 이본이 여럿 등장한다. 윗글은 이러한 이본 중 하나로, 이전에는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또한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에서는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흥미를 높였다. 특히 이전에는 왕이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였지만 윗글에서는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것으로 변형하였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대 독자들의 욕망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편,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다음 권을 보게 하려는 소설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 ① ㉠은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것이겠군.
- ② ㉡는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겠군.
- ③ ㉢는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시도이겠군.
- ④ ㉡는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9.09

【앞부분 줄거리】 공동 경비 구역에서 근무하는 국군 이수혁 병장, 남성식 일병(수정의 오빠)과 인민군 오경필 중사, 정우진 전사 사이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소피 소령을 파견하여 보타 소장 관할 아래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 S#79. 팔각정 (낮)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 전경 — 대질 심문을 받고 나온 수혁, 경필 일행이 회담장 앞에서 각각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다. 카메라, 후진하면서 팔각정 내부로 초점 이동하면 보타의 손이 쑥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민다.

소피 : (영어) (봉투를 받아 들고) 뭐죠?

보타, 대답 대신 관측경을 들여다본다.

보타 : (영어) 한국이 처음이랬지?

㉡ 보타의 관측경으로, 판문각 앞에서 쌍안경을 들고 이쪽을 관찰하는 북한 군인이 보인다.

보타 : (영어) (목소리) 그래 ‘아버지’ 나라가 마음에 들던가?

㉔ 판문각 쪽에서 북한 군인의 쌍안경 시점으로, 사진을 보고 있는 소피의 모습이 잡힌다.

보타의 설명 사이사이, 한국전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생활과 좌우 투쟁, 종전 후 공산 포로 북송, 반공 포로 석방 및 제3국행 포로의 출발과 도착 장면들이 사진과 기록 영화 화면으로 편집된다.

**보타 :** (영어) (목소리) ㉕ 한국전 당시 거제도에는 인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지.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 두 무리 간엔 처참한 살육이 계속됐어. 종전되고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 남으로의 귀순이나, 북으로의 귀환이나... 그 17만 포로 중 76명은 둘 다를 거부했어. 그들 중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네.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우 같은 사람이지.

소피, 놀란 얼굴로 손에 든 다른 사진을 내려다보면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 결박당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있다. ㉖ 그중 동그라미가 처진 사람 얼굴로 zoom인\*.

**보타 :** (영어) 표 장군이 매우 썩썩하게 움직였더군. 국방부, 외무부, 인도, 아르헨티나, 스위스 대사관... 며칠 사이 정보란 정보는 다 모았어. 표 장군으로선 ㉗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었겠지.

**소피 :** (영어) (홍분해서) 3일이면 돼요. 곧 이 병장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구요.

(중략)

### ㉘ S#81. 소피의 숙소 (낮)

침대에 가방을 올려놓고 짐을 싸는 소피. 사진 액자를 가방에 넣으려다 말고 들여다본다. 어린 시절의 소피와 스위스인 엄마 사진. 액자 뒤를 열어 가족사진을 꺼낸다. 접힌 부분을 펴자 숨겨진 아버지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난다.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는 소피.

### S#82. 수사본부 (낮)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수혁, 목발을 짚었다. 사진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소피.

**소피 :** (수혁을 돌아보며)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몸도 불편한데.

영문을 모르고 불러 온 수혁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들고 출입구 앞으로 가는 소피. 과녁판에서 다트 화살을 뽑아 든 다음 서류 한 장을 쫓아 고정시킨다.

**소피 :** 내일 자정을 기해 나를 제이에스에이 근무에서 해제한다는 명령서예요.

**수혁 :** 들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소피 :** 그래, 내가 인민군 장교의 딸이란 얘길 듣고 기분이 어땠던가요?

**수혁 :** (주저 없이)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㉙ 소피,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가 군복 안에 받쳐 입은 터틀넥 스웨터의 목을 젖혀 보인다. 목에 나 있는 피멍 자국.

**소피 :** 난 아직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병장은 깨끗하네요. 이 병장이 오 중사보다 힘이 센가 보지요?

당황하는 수혁, 대답 없다.

**소피 :** 자, 진짜 재미난 쇼는 이제부터예요. 잘 봐요.

수혁의 얼굴이 프린트된 출력물을 과녁판에 꽂는 소피. 당황하는 수혁.

**소피 :** 수정 씨를 만나자마자 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수정의 초상화를 과녁판에 꽂는 소피. 놀라는 수혁.

**소피 :** 정우진이 그린 초상화예요. 그리고 이걸 (찢어져 너털 너털한 얼굴 없는 사진을 과녁에 꽂으며) 정우진의 시신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과녁판에 나란히 부착된 ㉚ 석 장의 이미지. 충격받은 표정의 수혁.

**소피 :** '사라진 탄환'이 남 일병의 알리바이를 깨는 증거였다면... (얼굴이 찢겨 나간 사진을 가리키며) '사라진 얼굴'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죠.

수혁, 애써 외면하고 걸어간다.

**수혁 :** 그래서요?

㉛ 노란색과 빨간색 디스켓 두 개를 꺼내 보이는 소피.

**소피 :**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수사 보고서예요. 내가 뭘 제출하느냐는 이 병장한테 달렸어요. 진실을 말해 준다면 난 후임자에게 어떤 증거나 추리도 제공하지 않겠어요.

**수혁 :** 험박입니까?

**소피 :** 거래죠.

**수혁 :** 영창을 가든 훈장을 받든 전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㉜ 진실의 대가로 소령님이 저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니까?

**소피 :** 이 병장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에요.

-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

\* 부감 : 카메라가 인물의 시선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촬영하는 것.

\* zoom인 : 피사체의 크기를 점점 확대 촬영하는 것.

## 3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피'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자 북으로 귀환한다.
- ② '소피'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조사 의지가 없다.
- ③ '수혁'은 '소피'의 아버지의 전력을 듣고 '소피'를 경계한다.
- ④ '소피'는 '사라진 얼굴'이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한다.
- ⑤ '소피'는 '수혁'이 '오경필'의 안전을 염려한다고 생각한다.

## 40. ㉘~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㉘의 공간 범위는 팔각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포함한다.
- ② ㉜는 '소피'가 직무에서 해제되는 원인이 된다.

- ③ ㉔는 '소피'가 네 병사의 관계를 짐작하게 된 단서이다.
- ④ ㉕는 '수혁'이 진실을 밝히느냐에 따라 어느 것이 제출될지가 정해질 것이다.
- ⑤ ㉖는 '수혁'이 수사본부에 있는 '소피'를 만나러 온 이유이다.

41. 윗글을 영상화한다고 가정할 때, ㉑~㉕에 해당하는 감독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㉑과 ㉔은 각각 관측경과 쌍안경으로 상대측을 바라보는 장면을 설정하여 남북한 대치 국면에 있는 S#79 공간의 특수성을 그려야겠어.
- ② ㉕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촬영과 달리 사진이나 기록 영상물을 제시하여 당시 상황을 보여 주어야겠어.
- ③ ㉖은 동그라미 처진 얼굴을 확대 촬영하여 '소피'의 아버지가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겠어.
- ④ ㉕은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과 소품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야겠어.
- ⑤ ㉕은 사건의 맥락이 관객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실내 전체를 한 화면에 담아야겠어.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11

(가)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뿐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나?……’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거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뿐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옆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그러나 ㉑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뿐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제6절 몰락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흠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㉒ 한편 개

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서,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A]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룡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한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든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 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때, 어둡게 해 주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이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불일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같이,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고 차부에서 강화행 자동차를 탔다.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발소 소년<sup>㉓</sup>이, 용하게도 막, 그들의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래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그들이 남부끄럽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흘끗 본 이는 몇 명이 못 된다. ㉔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하숙옥 간판이 걸렸다.

- 박태원, 「천변풍경」 -

(나)

#68. 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 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흠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sup>㉔</sup>\* :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70. 산비탈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황홀에 묻힌 거리.

#71. 자동차 안

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고

운전수 : 손님!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 그럼 내립니다. 시시한 동네까지 몰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윤전수 : (공손히) 감사합니다.

### #72. 철호의 방 안

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꿰매고 있다. 옆에서 꼴꼴 자고 있는 혜옥.

영호 : (들어오며) 혜옥아!

(중략)

### #73. 철호의 집 부엌 안

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매를 끌르며

민호 : 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철호<sup>㉔</sup> : 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sup>㉔</sup> :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sup>㉔</sup> : 어디 취직을 해야지.

###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 그럼 뭐 뽀죽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 용기?

영호 :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 허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쑤시고 아픈 걸 견뎌내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러 왔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픽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 그건 억설이야.

영호 : 억설이요?

철호 :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 천만에요.

### #75. 철호의 집 골목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sup>㉔</sup> : 그게 바루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sup>㉔</sup> :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던 말입니다.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 ㉔ :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 O·L(overlap):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22.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 ②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⑤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뎌움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꿰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25.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8의 장면에서 이어지는 #69에서 '철호㉔'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69에서 '철호㉔'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06

S# 29 궁궐 외곽의 작은 문(밤)

㉠ 보쌈 한 박 나인을 들고 가는 일단의 나인들. 역시 은밀하고 기민한 동작이다. 불안한 얼굴로 보자기를 하나 들고 뒤따라가는 한 나인.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 몸도 마음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

S# 30 산 계곡 은밀한 곳(밤)

보쌈을 풀고 나오는 박 나인. 나인 하나가 눈과 입을 풀어 주면 앞의 전경이 보인다. 가운데 최고 상궁인 최 상궁이 떡 버티고 서 있고 옆엔 기미 상궁, 그리고 나인들 예닐곱 명이 서 있다. 그 가운데 불안한 눈빛의 최 나인, 그리고 한 나인, 또 한 나인이 들고 있는, 보자기를 벗긴 술병까지. 이윽고 바닥에 풀려지는 박 나인. 박 나인,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술병 안에 무언가를 넣는 한 나인.

박 나인 : (영문을 모르는 채 두려움에 떨고)

최고 상궁 : 네 죄를 인정하겠느냐?

박 나인 :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최고 상궁 : 다시 묻겠다! 네 죄를 인정하느냐?

박 나인 : (더욱 안타까워) 마마님, 무엇이옵니까? 무슨 연유로 이리 하시는지 알려 주시옵소서.

한 나인 : …….

(중략)

S# 47 암자 안(밤)

들어오는 천수, 보면 박 나인이 한삼으로 입을 막은 채 토약질을 하고 있다. 천수, 얼른 들어와,

㉢ 천수 : 막지 마시오! 토약질을 해야 살아난다고 했소.

하고는 얼른 박 나인의 옆으로 가 등을 쓰다듬고, 두드려 주며 토약질을 돕는다. 한참을 그러고 나니, 잠시 토약질을 멈추는 박 나인. 힘없이 누우려는데, 박 나인이 누웠던 곳에 작은 쪽지 하나가 있다. 쪽지를 발견하는 천수. 박 나인에게 말없이 쪽지를 건넨다. 박 나인, 받아 들어 펴 본다. 수라간에서 급히 썼는지, 종이에 간장으로 쓴 한 나인의 옛 한글 서찰이다. 보는 박 나인의 눈에 금방 눈물이 맺히고, 천수도 같이 보게 되나 천수의 얼굴은 복잡하다.

한 나인 : (E\*) 명이야, 살았느냐? 살았느냐? 지금 너를 죽일 약병을 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S# 48 수라간(회상\*, 밤)

급히 들어오는 한 나인. ㉣ 이리저리 휘돌아보다가 선반 옆 서랍 속에서 무언가를 급히 찾는다.

한 나인 : (E) 순간, 부자탕은 감두탕이나 녹두로 해독할 수 있다는 네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살았느냐, 명이야 …….

이윽고 녹두물 그릇을 찾은 듯 급히 품에 넣고 나간다.

**S# 49 암자 안(밤)**

눈물을 흘리며 보고 있는 박 나인, 옆에서 보는 천수. 박 나인에게 연민과 동질감이 느껴질수록 마음이 복잡하다.

**한 나인** : (E) 흑, 죽었거든 나를 용서치 말며 흑, 살았거든 내 말을 들어다오.

**S# 50 수라간(회상, 밤)**

급히 글을 쓰고 있는 한 나인의 모습. ㉠ 글을 쓰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다.

**한 나인** : (E) 나도 일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 네가 남자와 통정했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에 너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들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된다. 멀리 도망가서 살아라. 살아다오! 그리해서 힘없이 너를 보낸 나를, 그들의 협박에 무릎 꿇은 나를 벌해 다오! 이를 어찌하면 좋으나, 명이야…….

**S# 51 암자 안(밤)**

박 나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천수, 조용히 나오고.

- 김영현, 「대장금」 -

\* E: 'Effect'의 약자로서 보통 효과음을 말함. 이 극본에서는 말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를 가리킴.

\* 회상 :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말함. 이 극본에서 는 지난 사건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찰 내용의 재현을 가리킴.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대사들이 활용되고 있다.
- ②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에 의해 고즈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 ⑤ 장소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8. 서찰과 관련지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나인'은 '박 나인'의 생존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 ② '박 나인'은 남자와 통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징벌을 당했다.
- ③ '한 나인'은 구체적인 증거물에 근거하여 '박 나인'이 결백하다고 보았다.
- ④ '박 나인'이 '한 나인'에게 알려 준 정보 덕분에 '박 나인'이 살 수 있었다.
- ⑤ '한 나인'은 '박 나인'을 살리려는 시도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 했다.

39. ㉠~㉣ 중 <보기>의 촬영 기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양각(仰角, Low-angle) : 주로 인물의 권위나 위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를 인물보다 아래쪽에 설치하여 올려 찍는 기법.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09

(가)

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잖더니, 금일 이별 어이하리! 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냐? 나는 아마도 못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風憲)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년 나을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인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느냐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

[A]

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이리해서 분명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떠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 ㉠ 명문(明文) 써 준 것이 있으니, ㉡ 소지(所志)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 편을 들어 패소시키시면, 그 소지를 덧붙이고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감영에 올라가서 순사또께 소장(訴狀)을 올리겠소. 도련님은 양반이기에 ㉢ 편지 한 장만 부치면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거든,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서, 형조와 한성부와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서 지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 판결문을 모두 덧붙태어 뽕뽕 말아 품에 품고 팔만장안 억만가호마다 걸식하며 다니다가, 돈 한 푼씩 빌어 얻어서 동이전에 들어가 바리뚜껑 하나 사고, 지전으로 들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에 언문으로 ㉤ 상언(上言)을 쓸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東郊)로나 서교(西郊)로나 임금님이 능에 거둥하실 때, 문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용대기(龍大旗)가 지나가고, 협연군(挾輦軍)의 자개창이 들어서며, 붉은 양산이 따라오며, 임금님이 가마나 말 위에 당당히 지나가실 제, 왈각 뛰어 내달아서 바리뚜껑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세 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격쟁(擊鐙)을 하오리다! 애고애고 설운지고!

그것도 안 되거든, 애쓰느라 마르고 초조해하다 죽은 후에 뉘이라도 삼수갑산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채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이별 말이 웬 말이오?

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나와 백 년 원수로다! 진시  
황이 분서(焚書)할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그때 불살랐  
다면 이별이 있을쏘냐? 박랑사(博浪沙)\*에서 쓰고 남은 철퇴  
를 천하장사 항우에게 주어 힘껏 둘러메어 이별 두 글자를 깨  
치고 싶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  
당하는 상좌가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 작자 미상, 「춘향전」 -

\* 박랑사 : 중국 지명. 장량이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곳.

(나)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가 이별이로다  
춘향이가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다

나를 두고 가겠으면 홍로화(紅爐火) 모진 불에  
다 사르겠으면 사르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잡을 데 없으시면 ㉠삼단같이 좋은 머리를

[B] 휘휘칭칭 감아쥐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용천검(龍泉劍) 드는 칼로다

요 내 목을 베겠으면 베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두어 두고는 못 가시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영천수(潁川水) 맑은 물에다

던지겠으면 던지고나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이리 한참 험난하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방자 놔 분부하여 나귀 안장 고이 지으니

도련님이 나귀 등에 올라앉으실 때

춘향이 기가 막혀 미칠 듯이 날뛰다가

우르르 달려들어 나귀 꼬리를 부여잡으니

㉢ 나귀 네 발로 동동 굴러 춘향 가슴을 찰 때

안 나던 생각이 절로 나

그때에 이별 별(別) 자 내인 사람 나와 한백 년 대원수로다

깨치리로다 깨치리로다 박랑사 중 쓰고 남은 철퇴로

천하장사 항우 주어 이별 두 자를 깨치리로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향단이 준비했던 주안을 갖추어 놓고

푼고추 겨리김치 문어 전복을 곁들여 놓고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별 낭군이 잡수시오

언제는 살자 하고 화촉동방(華燭洞房) 긴긴 밤에

청실홍실로 인연을 맺고 백 년 살자 언약할 때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曾參)\* 되자더니

㉣ 산수 증삼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

잘 가시오

잘 있거라

산첩첩(山疊疊) 수중중(水重重)한데 부디 편안히 잘 가시오

나도 ㉤ 명년 양춘가절\*이 돌아오면 또다시 상봉할까나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 증삼 : 공자의 제자. 고지식하여 약속을 반드시 지킴.

\* 양춘가절 : 따뜻하고 좋은 봄철.

3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련님'은 이별의 상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춘향'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③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춘향'은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⑤ '춘향'은 천상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도련님'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춘향'이 쓴 글이다.
- ② ㉡: '도련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③ ㉢: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는 '도련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④ ㉣: '도련님'에게는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⑤ ㉤: '춘향'이 '순사또'의 힘을 빌려 '임금'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지닌 자부심을 환기하여 좌절감을 완화하는 소재이다.
- ② ㉡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어 현재의 고통과 대비하기 위한 소재이다.
- ③ ㉢는 부정적인 상황을 희화화함으로써 당면한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 ④ ㉣는 기대가 어긋나 버린 사정을 부각하여 비애감을 심화하는 표현이다.
- ⑤ ㉤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표현이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여러 작품에서 '춘향'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춘향'은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면모를 보이기도, 목표를 이루려 단호하게 행동하는 적극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신세를 한탄하며 절규하는 걱정적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 문제를 숙고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치밀한 면모를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춘향'은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를 지니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양반들이 한통속이어서 '도련님'을 두둔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입장을 취하는 '춘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구걸하고 다니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모습을 통해,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춘향'의 적극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며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습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도련님'에게 주안을 울리며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서글픈 현실을 감내하려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 (나)에서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철퇴로 깨뜨리고자하는 모습을 통해, 복받친 감정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춘향'의 걱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조선 후기에 책을 대여하고 값을 받는 세책업자는 「춘향전」을 (가)와 같은 세책본 소설로, 유흥적 노래를 지은 잡가의 담당층은 「춘향전」의 대목을 (나)와 같은 잡가로 제작했다. 세책업자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흥미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 잡가의 담당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해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끌어냈다.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어 노래를 구성할 때에는 작품 속 화자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였다.

- ① [A]에서 '생는 나올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은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되었군.
- ② [A]에서 '도련님'에게 거듭하여 묻는 형식을 사용한 것은 분량을 늘리려는 의도와 관련되었군.
- ③ [B]에서 첫 행에 작품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청중을 작품의 내용에 빠르게 끌어 들이려는 전략과 관련되었군.
- ④ [B]에서 '못 가시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인물의 감정을 강조한 것은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되었군.
- ⑤ [B]에서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이겠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11A

**[앞부분의 줄거리]** 흥 판서와 시비 춘삼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다가 부친께 호부호형을 허락받고, 집을 나와 활빈당 활동을 벌여 조정과 대립하다가 병조판서 벼슬을 받는다.

음력 구월 보름에 임금이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걸으실새, 문득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청아한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 주상 앞에 엎드렸다. 임금이 놀라 묻기를,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슨 일을 말하고자 하니뇨?”  
 소년이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이옵니다.”  
 상이 놀라 또 묻기를,  
 “네가 어찌 심야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해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문(文)으로는 홍문관 벼슬이 막히고 무(武)로는 선전관 벼슬길이 막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활빈당으로 더불어 사방을 멋대로 떠돌아다니며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정에 죄를 지었던 것이온데, 이는 전하로 하여금 아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벼슬을 내리어 신의 소원을 풀어 주셨으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더니 공중에 올라 아득히 날아가거늘, 임금이 그 저주를 못내 칭찬하였다. 그 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으니 사방이 태평하였다.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고 무기 창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은 풍족하게 되었다.

(중략)

상주 인형이 자세히 보니, 곧 길동이라 붙잡고 통곡하며,  
 “아우야, 그 사이 어디 갔더냐? 아버지께서 평소에 유언이 간절하셨는데, 이제 오니 어찌 자식의 도리이겠느냐?”  
 하며, 손을 이끌고 내당에 들어가 모부인(母夫人)을 뵈우고 춘삼을 상면하여 한바탕 통곡하였다.  
 “네가 어찌 중이 되어 다니느냐?”  
 하니, 길동이 대답했다.  
 “소자가 조선을 떠나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지술(地術)을 배웠습니다. 이제 부친을 위하여 좋은 터를 구했으니, 모친은 염려 마소서.”  
 인형이 크게 기뻐 말하였다.  
 “너의 재주 기이한지라, 좋은 터를 얻었으면 무슨 염려가 있으리오.”  
 다음날 길동이 운구하여 제 모친을 모시고 서강 강변에 이르니, 지휘해 놓은 대로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올라 화살같이 빨리 저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이 수십 척의 배를 대어 놓고 있었다. 서로 반기며 호위하여 가니 그 광경이 대단하였다. 어언간 산 위에 다다르매, 인형이 자세히 본즉 산세가 웅장한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내

탄복하였다. 일을 마치고 함께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 백씨와 조씨가 시어머니와 시숙을 맞아 뵈옵는 한편, 인형과 춘섬은 못내 길동의 지식을 탄복하였다.

여러 날이 되자, 인형은 길동과 춘섬을 이별하면서 산소를 극진히 모시라 당부한 후, 산소에 하직하고 출발했다.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뵈옵고 전후 사실을 고하니, 부인이 신기하게 여겼다. 길동이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 삼년상을 마치며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쓰니, 병사는 잘 조련되고 양식도 풍족했다.

남쪽에 울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기름진 평야가 수천 리나 되며 덕화(德化)가 행해지니 실로 살기 좋은 나라라, 길동이 매양 생각해 오던 바였다. 모든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울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정성을 다하라.” 하고는 그날로 진군하였다.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속으로 후군장을 삼아,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 울도국 철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걸었다. 울도국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사가 이름을 보고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달아 싸웠다. 길동이 이를 맞아 싸워 한 번에 김현충을 베고 철봉을 얻어 백성을 달래어 위로하였다. 정철로 철봉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지휘하여 바로 도성을 칠새, 격서(檄書)를 울도국에 보냈으니, 내용은 이러하였다.

“의병장 홍길동은 글을 울도왕에게 부치나니,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내 하늘의 명을 받아 병사를 일으키며, 먼저 철봉을 깨뜨리고 물밑듯 들어오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왕이 보기를 마치자 크게 놀라,

“우리나라가 철봉을 굳게 믿었거늘, 이제 잃었으니 어찌 대항하리오.”

하고는,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항복했다.

길동이 성중에 들어가 백성을 달래어 안심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울도왕을 의령군에 봉했다. 마속과 최철로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고, 나머지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리니, 조정에 가득 찬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 하례하였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삼 년에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주워 갖지 않으니, 태평세계라고 할 만하였다.

- 허균, 「홍길동전」 -

4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임금은 그를 선동으로 오해했다.
- ② 인형은 부친의 장례식에 나타난 길동을 동생으로 대했다.
- ③ 길동은 잘 훈련된 정예병을 이끌고 울도국을 공격했다.
- ④ 울도국 태수는 길동이 보낸 격서에 놀라 항복했다.
- ⑤ 길동은 부하들에게 벼슬을 주고 울도국을 다스렸다.

4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친의 삼년상을 길동이 영웅들을 모아 함께 치르는 과정에서, 길동과 부하들 간의 유대감이 공고해지고 있다.
- ② 부친의 생전에 호부호형을 허락받았던 길동이 부친의 사후에는 산소를 모시게 됨으로써, 자식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 ③ 부친을 운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엄숙하게 참여함으로써, 부친의 평소 넓은 인간관계가 사회적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 ④ 부친을 산소에 모시는 자리에 모부인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부친 사후 모부인을 중심으로 길동의 가족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 ⑤ 부친을 위해 좋은 터를 마련하고자 지술을 배운 길동을 모친이 염려하는 데서, 주술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가족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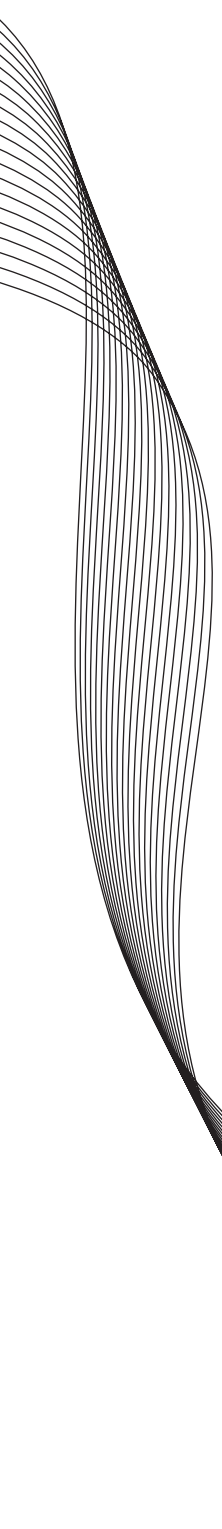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자 홍길동의 일생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드러난다. 즉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동은 부당한 사회와 충돌하기도 하고, 개인적 욕망 성취를 위해 사회 부조리와 타협하거나 명분과 괴리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 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길동의 벼슬길이 막히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폐쇄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신분 차별에 저항했던 길동이 벼슬을 받자 자신의 행적을 '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길동이 욕망 성취 과정에서 당대의 사회 제도와 타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봉건 체제의 상징인 임금이 당대 사회 제도의 부당함에 공감하여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분란을 일으킨 길동에게 임금이 벼슬을 내려 길동의 불만을 달랠 뿐 그 근본 원인은 해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⑤ 길동이 울도국을 침략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스스로를 '의병장'이라 부르며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길동의 욕망 성취 과정에서 행위와 명분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았다가 조금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겠다

-빈센트 반 고흐